

코스피	2706.97	코스닥	879.96
	(-46.19)		(-11.63)
금리 (연이자율)	3.341	환율 (원/달러)	1348.90
	(+0.008)		(-3.20)



## ‘초연결’ 삼성 vs ‘공감지능’ LG... AI 가전 맞짱 뜬다

삼성전자 “AI 가전=삼성” 선포  
2024년형 비스포크 AI 15종 공개  
빅스비 등 통해 모든기기 원격제어

LG전자 “업 가전이 AI의 시초”  
공감지능 적용 제품 10여종 확대  
온디바이스 AI칩 자체개발 나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 시장을 두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가전과 글로벌 TV 시장을 두고 주도권 선점에 나선 것. 특히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 규모가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시장에 삼성전자가

다시 뛰어들면서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의 규모는 5386억달러(약 766조원)로 지난해 4480억달러(약 637조원)에서 2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가전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14.5%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3일 삼성전자는 초연결 AI 가전 신제품을 공개하며 2024년형 비스포크 가전 신제품 라인업을 선보였다. 삼성전자가 이날 선보인 제품은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비스포크 AI 인덕션 등이다. AI 제품은 15종이다. 대형 터치스크린 기반의 ‘AI 홈’, 음성 인식 ‘빅스비’를 통해 집안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같은날 LG전자도 참고자료를 통해 고객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감지능’을 강조하며 글로벌 AI 가전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현을 위해 가전 전용 온디바이스 AI칩 ‘DQ-C’를 자체 개발해 주요 제품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2024년형 휘센 오브제컬렉션 타워 에어컨,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 등에 공감지능을 적용했으며, 공감지능 특징을 적용한 제품군을 10여종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킨 차세대 가전 전용 AI칩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AI칩 라인업을



대만 ‘강진’에 TSMC 반도체 공급망 비상

3일(현지시간) 대만 동부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2 강진으로 최소 7명이 숨지고 736명이 다쳤다고 로이터와 AFP통신이 보도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회사인 TSMC도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차질이 우려된다. 한 건물이 크게 기울어져 있다. /뉴시스

다변화하고 공감지능의 AI가전 제품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장들이 AI 가전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중희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DX부문장)은 지난 1일 기고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선보이는 2024년 제품은 AI(인공지능) 기술의 집약체”라며 “최첨단 AI와 스마트싱스(SmartThings) 기반의 연결 기술로 무장한 ‘비스포크 AI’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판매량을 적극 홍보하며 ‘AI 가전=삼성’ 공식을 선포했다. 이 제품은 하나의 드럼으로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제품이다.

LG전자도 바로 맞섰다.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공지능(AI) 가전의 시초는 우리가 만들어낸 업(UP) 가전”이라며 “세탁기에 대한 제품 경쟁력은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걸 여러분도 다 알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경전을 높였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편법 아닌 불법”

금감원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조사  
이복현 원장 “대출용도 다르면 불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공동 감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5명의 감사 인력을 파견했으며 감사는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반은 양 후보의 사업자 대출 관련 거래 내역은 물론 전반적인 사업자 대출 현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8개월이 지난 뒤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의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 3000만 원을 갚았으며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 예타 획기적 개선”

대통령실, 예산확대·개혁 ‘투트랙’  
연구비 이용·성과 등 국민 투명공개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고, R&D 예산 확대와 함께 R&D 개혁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과학기술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그래서 정부는 정부 R&

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해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뀌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 부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 등 목표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연구기관·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및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4대 필수요건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전했다.

이를 위해 연구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

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위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정부 재정 투입 규모의 상한 액수조건을 완화하는 식으로 R&D 예타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이상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저희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 현장을 뛰어넘는 마이크로 규제 폐지와 연구비 이용·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고,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뉴스리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동훈 “이재명, 본인도 인정한 일베 출신... 제주 아픔 이용만 해” /사진 뉴시스  
▲ 민주당,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편성에 “총선 앞두고 급하게 증액”

▲ 정부, ‘대북제재 위반 연루’ 의심 무국적선박 남해 해상서 나포  
▲ 국방부, 총선 앞 ‘尹대통령 강연’ 장병 정신교육 하려다 보류



▲ 송영길 또 재판 불출석... 법원 “영망됐다, 구인장 검토”  
▲ 위안부 단체들, 민주 김준혁 후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사진 뉴시스

# 여초지역 10년간 8곳으로 늘고

(여자 인구가 남자 보다 많은 지역)

## 1인 가구 '1000만 시대' 열렸다

### 행정안전부 통계

여초지역에 대전·세종·인천 추가  
여자 인구 100명 당 남자 99.2명  
가구 5곳 중 2곳 이상 '홀로 거주'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많은 지역이 지난 10년간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말 기준 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는 99.2명이다. 또 전국의 1인 가구수는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1000만개를 넘어섰다.

3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기준 여초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이후 10년 동안 대전과 세종, 인천 등 3곳이 추가됐다. 이 중 인천은 올해 2월 남초에서 여초로 돌아섰다.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이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93.5명으로 남자 인구 비중이 가장 작았다. 서울지역은 여자 484만 명, 남자 453만 명이다. 이어 부산이 95.0명, 대구 96.5명, 광주 97.5명

순으로 남자 비중이 낮았다.

여자 100명당 남자 비중은 울산이 105.8명으로 가장 컸다. 그 뒤로는 충남(105.2명), 충북(103.5명), 경북(102.2명), 전남(101.7명) 순이었다. 이 밖에,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101.1명, 가장 적은 세종은 99.1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대 중반까지 계속 남초 사회를 유지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6월에 사상 처음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따라잡았다. 올해 3월 남성 2554만 명, 여성 2574만 명으로 여자 인구가 20만 명 더 많다.

15년 전인 2009년 3월에만 해도 100.3명으로 남자가 여전히 과반이었으나 남초 사회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 같은 추세는 '남아선호'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의 사라진 데다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긴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70대와 80대 여자 인구는 각각 401만 명, 206만 명이었다. 반면 갈

은 나이대의 남자 인구는 184만 명, 75만 명에 그쳤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인 가구 수가 올해 3월 역대 처음으로 1000만 개를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1인 가구는 지난달 말 기준 1002만 1413개로 전체 가구(2400만 2008개)의 41.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으로, 가구 5곳 중 홀로 거주하는 가구가 2곳이 넘는 셈이다.

올해 3월 1인 가구는 10년 전인 2014년 3월(692만 개) 대비 310만 개(+44.7%) 증가했다. 1년 전(2023년 3월·981만 개)에 비해서도 21만 개 늘었다.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최근 펴낸 보고서는 "앞으로 점차 젊은 1인 가구보다 노령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이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간간 1인 가구 지원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특히 남성 1인 가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 3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감독 업무 혁신' 등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

## 금감원-네이버, 금융감독 디지털 혁신 맞손

'하이퍼클로바X' 등 적용방안 모색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업무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MOU)을 3일 체결했다. 양측은 금융권 AI 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협력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업무도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마련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비롯해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 김병철 금감원 부원장보, 김남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양사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금융감독 업무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AI 활용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지속해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 기술은 산업혁명 수준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

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감독 업무에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AI활용 측면에서 네이버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1년여 정도는 시장 대응과 위기 관리 이슈로 미래지향적인 이슈나 생산성을 높이는 이슈에 (신경을) 덜 썼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금융감독 업무에 다양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네이버의 IT 기술력을 활용해 금감원의 감독·검사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대표이사는 "팀 네이버의 AI 기술은 산업계 전반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금융 분야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업계와 진행해 온 협력을 바탕으로 금감원 업무 혁신과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맞춤형 AI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협력을 약속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물가안정 최우선… ‘체감되는 성장’ 총력”

최상목 부총리, 거시경제 간담회  
“지난 2월 경기회복세 뚜렷해져  
올해 성장률 상향조정 하기도”

수출 실적이 반등하고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에 달하는 등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면서 해외투자자 등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내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 시장과 소통 및 인식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가 제조업 개선 및 시장예상을 뛰어넘는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는 등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2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경기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1분기 성장률뿐 아니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향조정할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JP 모건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1분기는 0.4%에서 0.6%로, 올해 연간으로는 2.2%에서 2.3%로 올려 잡았다.

또 해외투자자들도 최근 우리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자와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이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2월 반도체 생산이 14년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는 주요 외신 등을 인용하며 앞으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히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수출·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반도체 장기회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내수의 경우 고물가·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생산·수출과 비교해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경제 활성화 방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겠다”며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LG “삼성의 OLED TV 생산, 기회요인”

>> 1면 '초연결 삼성'서 계속

삼성전자와 LG전자는 OLED TV 시장을 두고도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 LG전자가 OLED시장은 주도했지만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 나서면서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OLED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으로 53% 점유율을 차지한

다. 11년 연속 OLED TV 부문 출하량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다만 삼성전자, 소니 등 후발주자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LG전자의 OLED TV 점유율은 옴디아 집계 기준 2021년 58.7%에서 2022년 54.3%에서 2023년 4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2024년형 네오(Neo) QLED TV와 OLED TV 신제품을 공식화 하면서 전략을 수정

했다. 중국기업이 저가가격을 내걸며 맹추격하고 있기 때문. 이에 중국보다 기술력이 높은 OLED 제품이 시장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후발주자로 나선 것.

이에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사장)은 “LG전자가 OLED TV 시장에서 11년동안 넘버원이고,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쟁사(삼성전자)가 (OLED TV)를 안 하겠다 하다가 결국 들어왔는데 저희는 이를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사업자 대출, ‘자금난’ 자영업자 위한 것”

>> 1면 '주택 구입 목적'서 계속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나 불법이나,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며 사안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중대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간 검사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금감원이 해당 대출을 검사하는 것이 ‘선거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금감원이 빠르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나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히려 “지금처럼 오해가 많지 않은 시기에 이 사안이 나왔다면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검사했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했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22년 발생한 ‘저축은행 작업 대출’ 사례도 거론했다. 이 원장은 “사업자 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닌 코로나

19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며 편법 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대출 시장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빠른 검사와 불법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원장은 “2019~2020년께에 벌어진 저축은행의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도 2022년에 광범위하게 검사를 진행했었다”며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데, 사업자 대출로는 (대출의) 80~90%까지 받을 수 있으니 15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고 6개월 사이에 3억~5억원의 차익을 내며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당시 차익 발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당시 600~700건 이상을 적발했고, (대출 시) 사업자 증빙 자료를 만들어 돈을 빌리는 단순한 패턴이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 비슷한 사례라면 검사에 몇 주, 몇 달이 걸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 예·적금 금리 3.5%다... 매력도 '뚝' 주식·코인 등 투자대기성자금 몰려

금 등 수익률 주목... 투자기회 모색  
시중은행, 요구불예금 최고치 경신  
“기업이익 증가 추세, 증시 살펴야”

정기예금 금리 매력 떨어지면서  
투자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투  
자자들이 주식·코인·금시장 등 수익성  
이 높은 곳에 투자하기 위해 기회를 엿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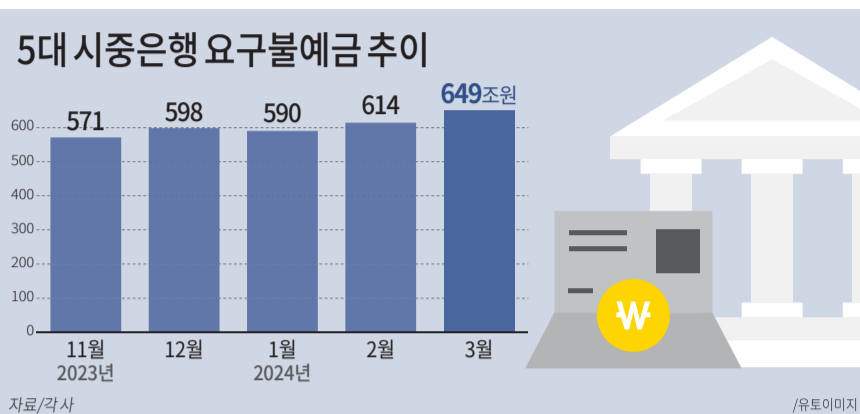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의  
3월 말 기준 요구불예금(MMDA포함)  
은 647조 8882억원으로 2월 말 614조  
2656억원 대비 33조 6226억원  
(5.47%) 증가했다. 이는 최근 17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 1월 말과 비교하  
면 무려 57조 1762억원이 늘어났다.

요구불예금이란 입금과 출금이 자  
유로운 예금이다. 주로 수시입출금 통  
장 형식으로 이용한다. 금리는 연 0.  
1% 수준으로 사실상 이자를 거의 받을  
수 없다.

요구불예금에 자금을 넣어둔 것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를 준비하거  
나 용도를 정하지 못한 대기성 자금 성  
격이 강하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거나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해 현금을 보유하  
며 시장 흐름을 지켜보려는 이들이 늘  
어날 때 요구불예금도 증가하는 경향  
이 있다.

요구불예금이 증가한 이유는 투자자  
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의 금리가 매력 떨어  
지자 예·적금에서 빠져나온 상당액은  
요구불예금으로 이동했다. 현재 시중  
은행 예·적금 금리는 연 3.45~3.55%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73조  
3761억원으로 전월 대비 12조 8740억원  
줄었다. 정기적금 잔액은 31조 3727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 8478억원 감소했  
다. 지난달 은행 정기 예·적금에서만  
14조 7218억원 감소했다.

투자자들은 투자처로 주식·코인·금  
시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 초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은 4만  
2000달러였지만 지난 1월 미국 증권거  
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미국 현  
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금리인  
하 기대감으로 7만 3000달러까지 상승  
했다.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치다.

현재는 6만 6000달러까지 하락해 숨  
고르기 상태지만, 반감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 높다. 앞서 세 번의 반감기인 2012년  
에는 8450%, 2016년에는 290%, 2020  
년에는 560% 상승한 바 있다.

금 가격 역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  
고 있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뉴욕상업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2281.80달러를 기록하면서 최  
고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 KRX 금  
시장에서 금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0만 1380원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식시장도 훈풍이 불고 있다.

올해 1월 17일 2435.90(종가기준)까  
지 밀렸던 코스피(KOSPI)지수는 정부  
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 힘입  
어 2750선까지 상승했다.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  
적이지 않은 데다 배당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문제 개선에 적  
극적으로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참여도  
높아진 것이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  
성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증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  
택을 주지 않는다면 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인하,  
가상자산 상승 경험 등으로 고객들이  
다른 대체 투자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 SPC그룹, ‘허영인 회장 체포’ 공식입장 발표

# “檢, 무리한 영장 집행... 유감”

“해외일정 등 사정 소상히 소명  
조사 회피·지연 의도 전혀 없어”



서울 서초구 SPC본사. /뉴시스

검찰이 출석 불응을 이유로 지난 2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한 가운  
데 SPC그룹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을 표한  
다”고 3일 밝혔다.

SPC그룹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허영인 SPC 회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  
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3월 18일 오  
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 요구  
를 받았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한 파스쿠찌  
사와의 공식 업무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검찰에  
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  
고 3월 19일과 3월 21일 연이어 출석 요  
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PC그룹은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돼 있었  
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  
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  
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한 번도 출석 요  
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해외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파스쿠찌사와의 일정  
도 국내에서 잡았을뿐더러, 이 시점에  
검찰이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이 SPC 측의 입장이다.

이후 지난 3월 25일 허 회장은 검찰  
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SPC그룹에 따르면 허 회장은  
고령의 나이에 중요한 행사 일정을 소  
화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 담당 전문가가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는 것  
이 SPC그룹 측의 주장이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  
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  
각에 변함이 없다”며 “허 회장의 사정  
을 소상히 검찰에 소명하였음에도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이 집행돼 유  
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  
부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  
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현재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  
지 SPC 자회사인 피피파트너스가 전  
국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  
석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  
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 신  
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룹 차원의 부  
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  
실을 알았는지,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  
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하 기자 mlee236@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목 적**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

**대 상** '22년 또는 '23년 연환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 (매출액 0원은 지원제외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 연환산)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24.2.21. ~ '24.4.20.**  
**비계약사용자 '24.3.4. ~ '24.5.3.**

**일반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운영)

**요금감면, 전기요금 계약종 관련 문의**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신청 및 결과확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이대 성상납’ vs ‘대파 875원’ 언행 논란… 민심 달랠수 있을까

〈김준혁 민주당 후보〉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 총선 유세현장 가보니

### 경기 수원정

능력·공약 보단 과거 언행에 입방아 여야 양측 논란들 터지면서 ‘안갯속’ 김 후보 “경솔했고 진심으로 반성” 이 후보, 사과 입장내고 고개 숙여

“학생들은 눈인사도 해주고, 가끔 오시는 어르신들은 손도 잡아주시고 그래요.”

제22대 총선에서 수원정에 출마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일 울전제2공영주차장 건너편에 성균관대학교 후문 앞에서 점심시간에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다.

봄을 맞은 대학생들은 무표정으로 인사를 받으며 점심을 먹으러 갔지만, 백 후보는 연신 두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자신을 홍보했다. 가끔씩 지나가는 중년 여성과 남성들은 백혜련 후보와 악수하면서 건승을 빌기도 했다.

수원특례시에 있는 5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중 유세 일정을 전날 미리 공지한 후보는 수원정의 백혜련 민주당 후보와 수원무에 염태영 민주당 후보가 유일했다.

수원 선거구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곳은 ‘수원정’이다. 수원정은 수원의 동쪽을 관할하는 선거구로, 국민의힘에선 범죄심리학자 출신으로 각종 범죄고발 프로그램에서 전문가적 분석을 한 이수정 후보가 출마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역사학자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출마 후보가 2일 수원 영통구 매탄하늘채아파트 앞에서 시민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출마 후보가 2일 매탄하늘채 아파트 앞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박태홍 기자

자 수원 화성을 알리는 데 역할을 한 김준혁 후보가 출마했다.

다만, 이들이 사람들의 입에 거론된 것은 능력이나 공약 때문이 아니라 언행 논란 때문이었다.

이수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소재 하나마트에 들러 정부 지원을 받아 할인된 대파 가격 875원에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자 한 방송에 나와 한 단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해 이슈를 키웠다. 대파 관련 영상을 하나 더 찍어 입방아에 오른 이수정 캠프는 사과 입장을 내며 고개를 숙였다.

직업이 역사학자인 김준혁 후보는 과

거 유튜브에 출연해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을 시켰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것이 논란이 됐다.

2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하늘채아파트 앞에서 만난 김준혁 후보는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사료와 근거를 가지고 한 말이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정 많은 시민들은 이 후보의 대파값 논란 때문에 많이 실망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은 그날 저녁 김준혁 후보의 과거 유튜브 방송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와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라고 김 후보에게 권고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는 정치 신인으로서, 제 과거의 발언이 너무나 경솔했음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사과 입장을 냈다.

민주당 지지자의 생각은 달랐다. 매탄하늘채 아파트 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피켓을 들고 김 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는 “역사학자로서 그런 말도 못하면 그게 무슨 역사학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검은색 강아지를 안고 있던 그는 김 후보와 대화를 나누던 중 “후보님, 국회 입성하시면 저희 집 강아지처럼 국민 말 잘 들어야한다”고 당부하기

도 했다.

이 지지자는 “제가 양배추를 일주일 에 한 통씩 사먹는다. 그런데 몇주전까 지 양배추가 1통에 3000원이었는데, 이제는 반통에 3000원”이라며 “이제 양배추도 못 먹게 생겼다”며 서민 먹거리 물가 상승에 실망한 눈치였다.

김 후보가 다음 유세 장소로 이동한 지 한 15분 정도 됐을까. 하얀 바람막이를 입은 이수정 후보도 매탄하늘채아파트 사거리에 등장했다. 이 후보는 횡단 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나눠주고 아파트에서 열린 장에 들러 주민들과 소통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지지자는 김 후보의 지지자와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 중 한 명은 김 후보에 대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수정 캠프 관계자는 선거 판세에 대해 “수원 5곳 선거구 중 수원 정 지역구는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했었다”면서 “지금은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논란들이 터지면서 출렁였다. 안갯속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선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백중세를 예측했다.

한편, 수원은 수원갑에 김승원 민주당 후보, 김현준 국민의힘 후보, 정희윤 개혁신당 후보, 수원을에 백혜련 민주당 후보, 홍윤호 국민의힘 후보, 수원병에 김영진 민주당 후보, 방문규 국민의힘 후보, 수원정에 김준혁 민주당 후보,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 수원무에 염태영 민주당 후보, 박재순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인구 80만명 밑으로 떨어져… 도시성장 위한 논의 시급”

尹 대통령 지지율 5%p ↓

### 인터뷰 김기표 부천을 민주당 후보

“부천 성장·도시가 가진 한계 잘알아 타 정치인보다 창의성·유연함 갖춰” 지역 경제 선순환되는 구조 만들 것

“부천이 지금의 김기표를 길렀고, 언젠가는 그런 부천에 보답해야한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다.”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은 김기표 후보(51)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좋은 정치로 김기표를 길러낸 부천에 보답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김 후보는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태어났지만, 10살 즈음에 학업을 위해 큰 누님이 있던 경기도 부천시로 상경했다. 부천에서 부천북초등학교, 부천동중학교, 부천고등학교를 졸업한 김 후보는 서울대에 합격, 이후 검사로 임용돼 굵직한 수사를 하는 등 법조인의 경력을 쌓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청와대에서 반부패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정권이 바뀐 후 “정의와 공정이란 단어로 국민을 현혹해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부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은 김기표 후보가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기표 캠프

출마 이유를 밝혔다.

검사 출신인 그는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진 권능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은 ‘내 편 아니면 네 편, 네 편 아니면 내 편’ 식의 철저한 이분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를 막고자 문재인 정부 때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어렵사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저는 부천에서 초, 중, 고를 나왔다. 부천의

성장과 도시가 가진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또한 기존의 정치인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창의성, 유연함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부천시의 미래에 대해 “중동 1기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재건축 등 재 정비의 틀은 갖춰졌다”며 “하지만 중동의 경우 1기 신도시 중 용역률이 가장 높아 주민들의 부담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동 역세권과 상동에 약 2000여 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계획이 있고, 중동 신도시 재개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지금도 심한 정체를 겪는 김주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등 구간 교통상황이 참담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저는 중동1기 신도시 재개발 완료시점 이전에 수도권 제1순환로의 지하화가 완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본인의 또 다른 지역 공약인 ‘글로벌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추진해나간다면 부천이라는 도시 내에서 제대로 된 산업으로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창출된 일자리로 시민들의 소비는 늘어날 것이며 제대로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부천은 과거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성장하는 도시였다. 그러한 부천이 어느새 인구 80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기업도 유출되면서 도시성장이 꺾인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천 전체의 발전동력을 무엇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전 같은 시기 조사한 지지도보다 5%포인트 내린 34%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메트로가 연합뉴스·연합뉴스TV의뢰로 지난달 30~31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2.4%,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 긍정은 34%, 부정은 61%로 나왔다. 모름·무응답은 5%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지난달 2~3일 조사(39%) 대비 5%포인트 하락, 부정평가 역시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지지도는 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대부분 권역에서 하락이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지율은 46%로 직전 조사(57%) 대비 11%포인트 내려 낙폭이 가장 컸다. 부산·울산·경남 지지율이 9%포인트 하락한 45%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 지지율은 서울이 3%포인트 내린 35%, 인천·경기는 6%포인트 내린 28%로 조사됐다. 대전·세종·충청은 변동이 없는 39%로 나타났으며 강원·제주 지지율은 직전 조사(36%)보다 12%포인트 오른 48%로 조사됐다. /박태홍 기자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목표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빌드업은 고객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가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반도체와 배터리  
디지털과 리사이클링이 결합된 친환경 기술  
시로 더 가까워진 에너지 트랜지션까지

**SK의 솔루션으로, SK의 팀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 정당별 저출생 주요공약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부 신설, 부총리급 격상</li> <li>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li> <li>부모 신청 시 육아휴직 자동 개시,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만원→210만원),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li> <li>육아기 유연근무 정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법제도 개선</li> <li>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 상향, 동료 육아 동료수당 대체 인력 확보</li> <li>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보미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문턱 낮춰, 소득 기준 폐지, 조부모 손자 돌봄 지원</li> <li>2027년까지 늘봄학교 무상 제공</li> <li>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 대학교 등록금 면제, 두 자녀 가구에도 단계적 확대, 공과금·대중교통요금·농산물 등 할인 혜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 2자녀 출생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생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7년차→10년차</li> <li>자산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만기 1억 대출 (첫 자녀 출생시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생시 원금전액 감면) 우리아이 키움카드, 아동수당 카드 지급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우리아이 자립펀드, 0~18세 매월 10만원씩 정부 펀드계좌 입금, 펀드 수익 전액 부과세</li> <li>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모든 가정 지원 돌봄수당 확대·미혼모부 특별 바우처 지원</li> <li>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급여 각각 50만원 추가 지원 부모육아휴직 신청시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제 제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동거 등 가족으로서 함께 살려는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제공(최대 20년)</li> <li>주4일제·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li> <li>소득격차 해소 임신·출산 사회책임제 아동수당 18세까지 지급, 아동청소년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 실시, 임신, 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 윈스톨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 마련 취약계층에게는 특화된 서비스 제공</li> <li>돌봄격차 해소 육아휴직·휴가 보장으로 여성에게만 독박육아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아빠 육아휴직도 강화</li> <li>교육격차 해소 유보통합으로 돌봄 부담 경감·학교 한반 20명과 중층기분학력보장 시스템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대학의 상향평준화와 학벌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출생예산파악위한 인구정책전담재원 마련</li> <li>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권한 부여</li> <li>전 국민고용보험 적용,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 인재채움뱅크(대체인력지원센터) 전국 운영</li> <li>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규정 삭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li> <li>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대상 확대 (2025년에는 10세, 2027년에는 13세까지)</li> <li>기업 내 여성고용, 일·가정양립 수혜현황 등 공시제도 포함 '성별임금격차개선법' 제정</li> <li>근무시간 외 업무방지 '근로기준법' 개정 남성 청소년 HPV 접종 2·3회 무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li> <li>근로계약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 상관 없이 일하는 출산여성에게 3개월 최대 630만원 지급</li> </ul>



# “육아휴직 개선” vs “1억 대출” vs “사회책임 강화”

〈국민의힘〉

〈민주당〉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 4·10 총선 공약 비교

### 저출생

“결혼하려면 모아 놓은 돈은 없고, 아이를 낳아 키우려니 돌봐줄 사람은 없다.”

저출생 시대, 대한민국 예비 부부와 부모들은 결혼과 육아가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비싼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도권 외곽 신도시로 눈길을 돌려보면, 통근시간이 늘어나 삶의 질은 하락하고, 서울의 저렴한 전세집을 알아보고자 하면 ‘전세사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결혼을 해서 돈을 모으려고 해도 원리금과 대출이자 상환의 압박은 월마다 돌아오고, 육아휴직이라도 하면, 가게 수입에 큰 타격으로 돌아온다.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도, 인젠가는 다시 직장에 돌아가야 하고 중소기업 직장인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

맞벌이와 공동육아 시대의 대한민국, 어느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그림을 짜놓고 주거·보육·노동·자산 축적 등 유기적으로 맞물린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민주당 종합 패키지 정책 선택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저출생 패키지 공약을 선보였다.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신설해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하는 부모가 눈치 안 보고 보육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가 신청만해도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개시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 150만

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분을 직장에 복귀해서 일을 해야 주는 사후 지급금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휴직 이외에도 육아기 유연근무의 정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등 법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높이고 동료에게 육아 동료수당을 주는 등 대체 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국힘** 인구부 신설, 부총리급 격상  
육아휴직급여 상한 210만원으로 인상

**민주** 세 자녀 가구, 무이자·원금 감면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수당

**정의** 주4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새로운미래** 저출생 전담 재원 마련  
**개혁신당** 전 국민출산휴가 급여제

국민의힘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민간 서비스와 조부모의 손자 돌봄에도 정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모든 가구의 대학교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도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공과금·대중교통요금·농산물 등 할인 혜택도 주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와 자산 축적, 돌봄, 일·가정 양립을 전체적으로 챙기는 패

키지 정책을 내놨다. 민주당은 2자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형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행 7년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산 축적 분야에선 결혼식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10년 만기로 1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자녀를 3명까지 낳으면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감면하고 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또한, 자녀의 자산 형성을 위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우리아이키움카드에 넣어주고, 0세부터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씩 입금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줄이겠다고 했다. 민간 돌봄서비스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제공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할 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사회 책임 강화”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후 전 과정에 대해 사회의 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녹색정의당은 결혼 관계이든, 동거 관계이든 가족으로서 함께 살려는 청년들에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주4일제’ 도입과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를 공약했다.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청소년, 미혼 부모,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돌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아빠들에게는 3개월 육아휴직을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재원이 투입되었지만 개선이 잘 되지 않는 저출산 관련 예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출생 전담 재원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예산조정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업 내의 여성고용 조치 이행 현황, 일·가정양립제도 수혜현황, 육아휴직 이후 여성의 복귀비율 및 임금 인상 여부 등을 공시제도에 포함하도록 하고 성별근로공시제 자료를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자가 휴가, 공휴일 등 지정된 휴식 시간에 휴대폰을 포함한 작업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고 근무시간 외 업무를 지시하는 사업주에게 벌금 부과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전국민출산휴가 급여제’를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제도 수혜대상을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까지 2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지난달 4일 오후 울산 남구 개운초등학교의 한 교실에서 늘봄학교 도담도담 프로그램에 참가중인 학생들이 전통놀이 수업을 하고 있다.



2024 국회 개방행사가 열린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어린이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뉴스시스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축구도 하나

은행도 하나

카드도 하나



하나 **뿐인**  
**내 편**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與 “文 정부시기 나랏빚 1000조... 민생정책 논할 자격 없어”

문 전 대통령 선거현장 지원 비판  
한동훈 “전직 대통령이 선거 운동 문 정부, 무능하고 비열하기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면서 ‘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일 일제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과 부산 사상구에서, 전날(2일)에는 부인 김경숙 여사와 함께 울산 동구·중구·남구 등을 방문해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 이 전에는 경남 거제를 방문한 적도 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후보 지원을 넘어 ‘철십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눈 떠보니 후진국” 소리도 들린다” 등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 출생으로, 오랜 기간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게다가 정치 입문 후 초선 의원을 지낸 곳은 부산 사상구다. 이 때문에 문



유일호(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민생경제 특위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 대통령이 부산경남(PK) 지역에 방문하는 것은 지역기반과 재임 시절 인기 등을 활용해 후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도 ‘PK 민심이 심상찮다’는 우려가 나오는 차였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울산 방문 이유에 대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선거”라며 “특별한 연고가 있는 지역이나 후보를 찾아 조용히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설

명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강원 원주 지원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 참전했다. 퇴임한 대통령이 선거 접점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하는 이런 것을 봤다.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기

뿐만 아니라 비열하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고맙다. 정권이 바뀐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 때문에 정권교체한 것 아니냐”며 “그 나머지 사람들(야당)이 우리가 제대로 정치하는 것을 발목 잡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대로 일하게 해달라. 진짜 정권교체를 완성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한 위원장은 “양문석(민주당) 후보 문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에게 대출받지 못하게 했다”며 “그런데 양 후보는 자기 딸을 내세워 사업자 등록을 조작해서 새마을금고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우리한테는 집을 못 사게 해놓고 자기들은 뒤통머리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며 “그렇지만 고맙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 위원장도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 70년 동안 나랏빚은 680조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만에 400조가 늘어 1000조가 넘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민생 정책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 북한 김정은 정권과 이인삼각으로 만들어낸 가짜 평화쇼, 28전 28패로 끝난 서울에 아파트 없는 국민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부동산 정책, 권력을 통해 짝어 누른 불법 탈원전 정책 모두 문 전 대통령의 통치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정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홍보 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직접 이념 정치로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편을 가르고 선동하는 문 전 대통령의 말은 오히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며 “국민에게 영원히 ‘무능’과 ‘내로남불’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되돌아보라. 이제라도 성난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경고했다.

/김현정·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野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못박아... 사과해야”

“장관 시절 실효성 있는 대안 없어  
선보상 할 수 없다며 구제 가로막아”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에게 “원희룡 후보는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애끓는 가슴에 대못을 여러 번 박았다”며 지지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희룡 후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절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어놓을 것처럼 말하더니, 선례를 남길 수 없어 정부가 전세 피해 선보상을 할 수 없다며 피해 구제를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희룡)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피해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부 대책이 없어 생긴 참사인데도 책



강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임 회피만큼은 역대급이었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원 후보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 후보 지지자들은 1인 시위에 나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폭언과 함께 발길질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쳤다고 한

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원 후보의 후원회장이자 며칠 전 시민에게 버럭했던 이천수 씨는 정당한 1인 시위를 유세 방해라고 주장하며 원 후보 측 지지자에게 112에 신고하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 한 사람이 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를 상징하는 영정 사진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한다. 1인 시위는 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원희룡 후보에게 묻고 싶다. 도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것인가”라며 “강자에겐 굽히고, 약자에겐는 불통인 원 후보가 과연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일자 일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내렸던 원 후보 때문에

‘김건희 로드’를 위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원 후보가 김건희 여사 일가를 비호해 피해는 고스란히 양평군민의 몫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원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전두환 씨를 찾아가 세배를 한 일도 있다”며 “강자에겐 앞다려 절하면서 약자에겐 후보와 지지자들이 대못을 박고 발길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원희룡 후보가 전세사기 피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리고자 계속 시위할 것이라고 한다”며 “원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원 후보의 지지자들은 발길질로 국민을 두 번 울렸다. 원 후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세 번 울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외교행낭을 통해 회송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지의 확인 및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재외투표율 62.8% 기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에 9만2923명의 재외유권자가 참여해 62.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9만2923명이 참여해 62.8%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 220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4만7647명(62.8%), 미주 2만6341명(56.5%), 유럽 1만4431명(73.5%), 중동 2904명(74.0%), 아프리카 1600명(79.3%)이다.

이날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지는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확인 및 분류 작업이 진행됐다. 이어서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4월 10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다만, 천재지변·전쟁·폭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관에서 국내로 재외투표지를 회송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한편,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박정익 기자

# 대통령실 “韓 기업, 사우디서 대규모 수주”

삼성E&A·GS건설, 파딜리 가스증설  
“정상외교 성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

대통령실은 3일 국내 기업이 72억달러(약9조7000억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가스증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삼성E&A(삼성엔지니어링)와 GS건설이 2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주베일 인근 지역에서 추진하는 ‘파딜리 가스증설 프로그램’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공사는 72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6월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의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를 넘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역사상 최대 규모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가 2022년 11월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와의 회담,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등의 결과물로,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정상외교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당시 열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간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념식에서 아민 나세르 아람코 CEO는 약 24억달러 규모의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 계약에 서명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수주한 인프라 사업은 아미랄 프로젝트, 자푸라 2단계 가스플랜트 등 95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수주했고, 전세계 해외건설 수주액은 333억달러에 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수주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61억1000만달러의 2배를 넘는 127억2000만달러에 달하게

된다”며 “올해 수주 목표인 400억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양국 정상 간에 구축된 굳건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국부펀드(PIF), 네옴 등 주요 발주처의 인프라, 플랜트, 스마트시티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추진되는 석유화학 플랜트, 철도 등 교통인프라, 해수담수화 시설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도 정부, 공기업, 금융기업 등이 원팀으로 지원하겠다”며 “정상외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D' 노선에 '플러스' 노선까지... 광명뉴타운 '장밋빛 기대감'

## GTX 노선 따라가보니

### 광명시흥

개통까지 10년 이상 긴 기간 소요  
호재 작용하기에는 시간 걸릴 듯

뉴타운 첫 단지 아크포레자이워브  
연초 대비 거래가격 1500만원 ↑

“GTX-D 광명시흥역은 정확한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광명뉴타운 주변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찾아간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아크포레자이워브'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대표는 “능촌사거리역 등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에 광명시흥역이 들어설 것이라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GTX-D 노선에 광명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의 가산디지털단지역이 포함돼 있어 광명뉴타운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광명아크포레자이워브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9개 동, 전용면적 32~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아크포레자이워브'.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김대환 기자

84㎡, 총 210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 2020년 11월 입주를 시작했다. 광명뉴타운에서 첫 번째로 입주가 시작된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렸다.

광명뉴타운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총 231만9545㎡ 규모에 추진되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다. 총 11개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2만5000여 가구의 신혼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대표는 “GTX-D 노선이 신설 노선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사업이 중간에 좌초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D노선 개통까지 10년 이상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아직 사업 계획만 나온 상태라 호재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어 GTX 전체 노선을 포함한 ‘교통 분

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GTX-D·E·F 신규 노선도 신설해 이른바 ‘2기 GTX 시대’를 준비하기로 했다.

D·E·F 신규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뉴타운 주변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GTX-D 노선은 부천 대장을 분기점으로 김포 장기와 인천공항으로 갈라지는 노선과 삼성을 분기점으로 교산과

원주로 갈라지는 노선이 이어진 ‘더블 Y자’ 형태다.

광명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교통공약인 ‘GTX플러스’ 노선안을 발표했다. 신설 2개 노선(GTX G, H)과 연장 1개 노선(GTX-C 오이도 연장) 등 총연장 162km에 이르는 3개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안은 기존 GTX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교통 수혜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KTX 광명역을 경유하는 GTX-G 노선이 완료되면 포천에서 KTX 광명역까지 43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명아크포레자이워브’는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7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거래가격(7억3000만원) 대비 1500만원 올랐다.

광명아크포레자이워브 옆에 자리잡은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는 지난해 12월 전용면적 59㎡가 7억8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아파트 호가 120억... 압구정 ‘사상 최고가’ “저출생·고령화로 성장성 둔화 시니어·어린이 맞춤형 서비스 추진”

현대 7차 전용 245.2㎡ 115억 거래  
재건축 기대감에 3년새 35억 뛰어

실거래가 115억원, 매도호가 120억원. 빌딩이 아니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80평형 아파트 가격이다.

압구정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개발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데도 불구하고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살아나더니 중대형을 위주로 신고가를 새로 쓰거나 최고가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 ◆ 압구정도 ‘100억 클럽’ 가입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 7차 전용 245.2㎡는 지난달 27일 115억원에 거래돼 동일 평형은 물론 압구정을 통틀어서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해당 아파트는 소위 ‘구현대’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에 위치했으며, 1978년에 입주해 50년차를 바라보고 있는 노후 단지다. 직전 실거래가는 급등장이었던 2021년 4월에 거래됐던 80억원이다. 전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과 반대로 3년 만에 35억원가량 뛰었다.

일부 대형 평형 뿐만 아니라 압구정 주요 평형인 50평형대도 최고가나 비슷한 선에서 실거래가 신고되기 시작했다.

‘신현대’로 불리는 압구정2구역에서는 신현대12차 전용 182.95㎡가 지난달 21일에 69억원(4층)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보다 8억2000만원 올랐다.

압구정의 A공인중개업소대표는 “압구정은 분위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거래한 건이 성사되면 호가는 그 가격에서 1억원씩 뛴다”며 “대형이 치고 나가니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놓고 입장이 엇갈린 현수막이 단지 곳곳에 걸려 있다.

/안상미 기자

소형도 따라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재건축 기대감이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

압구정의 B공인중개업소 실장은 “이달 말에 토허제 만료지만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없다”며 “주민들은 토허제로 묶이더라도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재건축이 본격화되길 바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 총선보다 재건축 조합장 선거에 주목

기대감은 커졌지만 재건축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 총 6개 구역 가운데 2, 3, 4, 5구역 등 4곳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1, 6구역 두 곳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합 설립도 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조합들도 빨라야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 3, 4, 5구역 모두 설계사를 선정하고 건축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내년 사

업인가를 받아도 입주는 2033년은 되어야 한다.

내부적으로 갈등도 여전하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에는 재건축을 놓고 입장이 다른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 있다.

신속한 재건축을 원하는 측은 “주참단(주민참여감시단)만 뒤희방놓지 않으면 재건축은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비난하고, 반대 측은 “대지지분 무시하는 신통기획 결사반대”를 들고 나섰다.

조합장 선거는 이미 과열 양상이다. 오는 6일 열리는 압구정3구역 ‘2024년 정기총회’에서는 조합 임원들에 대한 선거도 안건으로 포함됐다.

아파트 단지 외벽에는 총선이 아닌 조합 임원 선거 벽보가 붙어져 있고, 후보들은 출근길에 나선 주민들에게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유세를 했다. 3구역은 5층 안팎 5800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이며, 6개 구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커 압구정 재건축의 핵심으로 꼽힌다.

/안상미 기자 smahn1@

‘취임 100일’ 이병래 손보험회장  
급변하는 산업환경 긴밀 대응 위해  
4대 미래 핵심전략, 8대 과제 선정

“손해보험 산업은 유례없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하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회장은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보험회는 불확실한 위기 상황 속에서 보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손보험회는 미래 한국의 새로운 경제·산업 환경에 대비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디지털 혁신 ▲지속가능 보장체계 구축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확립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한다.

이병래 회장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 기술의 발전 등으로 산업 환경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며 “시장 트렌드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손보험계는 4대 미래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시니어를 위한 보험상품·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고령자를 위한 유병력자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해 고령자 맞춤형 보험서비스를 강화한다. 실손보험 저출생 보장 강화 및 청년·어린이 친화 서비스·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최중수 손보험회 소비자서비스 본부장은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고지 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실손보험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한 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이병래 손해보험회장이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김주형 기자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해 의료·비금융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손보사 결합수요 및 해외 활용사례 조사를 통해 신사업 추진 등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결합 아이디어 모델’을 발굴한다.

최 본부장은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결합 확대를 위해 데이터 결합 아이디어 모델을 발굴해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결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업권의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과 함께 공공의료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 맞춤형 판매채널도 다각화한다. 이병래 회장은 “4대 미래 핵심 전략의 달성을 위해 8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손보험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HMS, 친환경·디지털전환 확대... “5년 내 영업익 2배 성장”

(HD현대마린솔루션)

내달 IPO 앞두고 미래 비전 공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에 속도  
물류센터 구축에 544억 투자 단행

“조선산업과 관계없이 우리는 향후 5년 안에 매출·영업이익 모두 2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내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이하 HMS) 사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HMS는 안정적인 수익을 이끌어내고 있는 선박 애프터마켓(AM) 수요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친환경·디지털솔루션 사업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 사장은 “우리 사업은 조선 산업의 시클릭(Cyclical·주기를 두고 순환하는)한 측면과 달리 대외 경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며 “우리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회사”라고 강조했다.

HMS는 HD현대그룹 차기 총수인 정기선 부회장 주도로 2016년 설립된 회사다. HD현대중공업에 있던 선박 AM 부문을 좀더 체계화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분사했다. 출범 초기인 2017년만 해도 2403억원에 불과했던 HMS의 매출은 2018년 4145억원, 2019년 8090억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조4305억원으로 6년 만에 6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46억원에서 201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사장은 HMS가 앞으로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선업이 수주 불황으로 위기에 빠졌을 때도 매출과 영업이익은 흔들림없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선수인 해운사가 운항을 멈추지 않는 한 선박 노후화로 유지·보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가 2일 HD현대 GRC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사장은 “조선과 AM은 같은 밸류체인 내에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별개의 비즈니스”라며 “물론 많은 배가 제작되면 시장도 더 커지지만 조선산업 불황기에도 AM은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AM 시장 내에서 HMS는 최상의 위치를 자리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 세계 1위인 HD현대의 밸류체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감 부족 현상 발생에 대한 우려도 없다. 특히 전세계 4행정 엔진 시장에서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가진 힘센엔진의 정품 관련 서비스는 HMS에서만 가능하다.

이 사장은 “HD현대중공업의 대형 엔진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45% 정도 되고, 독자 모델인 힘센엔진의 점유율은 40% 정도 된다”며 “특히 가장 핫한 이종연료 최신 모델의 경우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시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HMS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솔루션 사업을 지목하고 기술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전장 시스템을 통한 선박 자동화 제어 확대,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연료 공급시스템 적용, 전기추진 등 전동화 전환, 선박 운

용비용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장비 수요는 선박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 HMS는 IPO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와 연구개발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HMS는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총 6524억~7423억원의 공모금액을 예상하고 있다. 그중 2대 주주인 KKR(사모펀드)의 구주매출(전체 공모주의 50%)을 제외한 유입 자금 대부분인 3225억여원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글로벌 AM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물류센터 구축 및 국내외 항만 창고 확보에 544억원을 투자하고, 타법인 엔진 AS 사업부 인수에 424억원, 포털·클라우드·재고관리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전문인력 확보 등 운영자금에 221억원, 글로벌 수리조선업체 지분투자 및 선박관리회사·설계회사 인수 등에 2036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이번 상장을 통해 우리는 또 한번의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효성티앤씨, ‘바이오 원료’에 1조 투자 단행

20만톤 바이오 BDO 공장 건설  
“바이오 사업 100년 핵심 주축될 것”

효성티앤씨가 바이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미래 신사업 육성에 나선다.

3일 효성티앤씨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베트남 남부 바리우붕따우성 푸미2공단에서 열린 ‘바리우붕따우성 비전선포식 및 투자승인서 수여식’에서 베트남 바리우붕따우성 정부로부터 ‘효성BDO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승인서를 받았다.

BDO(부탄다이올)는 스파텍스 섬유를 만드는 PTMG(폴리테트라메틸렌글리콜)의 원료 등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다. 최근에는 자동차내장재(TPU), 산업용 컴파운드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쓰이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현지에 총 1조원을 투자해 연산 20만톤의 바이오 BDO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바이오 BDO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에서 나오는 당을 발효시키는 방식으로 제조해 석탄 등 기존의 화학 원료를 100% 대체한 제품으로 친환경 소재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오른쪽)과 전홍하 베트남 부총리가 대담을 나누고 있다.

회사는 현재 베트남에 PTMG와 스파텍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원료부터 수직 계열화를 통해 바이오 스파텍스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효성티앤씨는 우선 2026년 상반기부터 연산 5만톤 규모의 바이오 BDO 생산 및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기존 화학 원료를 친환경 원료로 전환하는 바이오 사업은 100년 효성의 핵심 주축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 BDO와 바이오 스파텍스 일관생산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친환경 시장 공략을 강화해 효성의 프리미엄 브랜드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구광모 “기대 넘어선 경험·삶 변화 추구”

(LG그룹 회장)

2024 LG 어워즈 개최  
고객 감동 대상 4팀 등 98팀 수상

LG가 지난 2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한 해 동안 제품, 기술, 서비스 분야에서 고객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격려하고 전파하는 ‘2024 LG 어워즈’를 열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기대를 넘어선 경험과 삶의 변화가 LG가 추구하는 혁신”이라며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3일 LG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구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고객 심사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고, 실시간 온라인 중계에는 1000여명의 임직원들이 함께 했다.

구 회장은 “LG 어워즈는 고객들이 차별적 가치를 인정하고 주시는 상”이라며 “수상자들이 이뤄낸 혁신이 더욱 발전되고 확산돼 더 많은 고객에게 감동의 경험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최초·최고의 기술, 제품, 서비스 그 자체가 아니라 기대를 넘어선 경험과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변화를 느꼈을 때 고객은 차별적 가치를 인정해 준다”며 “이것이 LG 어워즈가 추구하는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LG는 올해 LG 어워즈에서 처음으로 구성원 심사제를 도입했다. 구성원 심사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가치 혁신 사례를 심사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LG는 고객 심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올해는 기존 MZ 고객 중심으로 운영하던 고객 심사단을 전문가, 주



구광모 LG그룹 회장(앞줄 오른쪽)가 지난 2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 어워즈에서 수상팀을 축하하며 격려 박수를 치고 있다.

부, 외국인,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 및 직업군으로 늘렸다. MZ 세대뿐 아니라 LG의 제품을 사용하는 다양한 고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올해 LG 어워즈에서는 최고상인 고객 감동 대상 4팀을 비롯해 고객 만족상 46팀, 고객 공감상 48팀 등 총 98팀, 724명이 수상했다.

LG는 출품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별적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 철저히 고객의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해 최고상을 선정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객 감동 대상을 수상한 LG전자의 LG 시그니처 올레드 M 개발팀이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M은 전원을 제외한 모든 선을 없앤 무선 올레드 TV다.

개발팀은 TV에 콘솔기기, 셋톱박스 등 다양한 외부기기를 연결해 사용하는 고객들이 TV 주변 복잡한 연결선을 지지분하게 느끼는 데 대한 불편 사항에 주목했다.

/구남경 기자 koogija\_tea@

## 현대차·기아 “어디든 로봇이 배달가요”

배송 로봇 ‘달이 딜리버리’ 공개  
사무실·쇼핑몰 등 복잡한 곳도 가능  
무게 중심 하단에 뒤 주행 안정성 ↑

사람이 있는 곳까지 식음료 또는 물품을 빠르게 배달해 편의를 높여주는 배송 로봇 서비스 시대가 열렸다.

현대차·기아는 3일 배송 로봇 ‘달이 딜리버리’의 새로운 디자인 이미지와 슷폼 영상을 공개했다. 달이 딜리버리는 사무실이나 쇼핑몰 등 복잡한 공간에서도 물건 배달이 가능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으로, 2022년 12월 현대차·기아가 공개했던 호텔 배송 로봇을 개선해 개발했다.

현대차·기아는 달이 딜리버리를 모서리가 둥근 사각기둥 형태로 디자인해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다. 또 센서를 최소한으로 노출하고, 무게 중심을 하단에 뒤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

달이 딜리버리는 4개의 PnD(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을 기반으로 성인 평



현대차·기아가 공개한 배송 로봇 ‘달이 딜리버리’.

균 걸음 속도인 4.32km/h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된 달이 딜리버리는 봄비는 공간에서도 장애물을 인식하고 빠른 회피 주행이 가능하며 10kg까지 박스 형태의 물건이나 최대 16잔의 커피를 실을 수 있다.

특히 달이 딜리버리는 건물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 관제 시스템과 연동해 스스로 건물 전체 층을 오가며 배송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했다. 또 실시간 최적 경로 형성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배송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령 대상자를 인식해 알아서 자동으로 문을 열 수 있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이 카메라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목적지, 운영현황 등 서비스 상황을 나타내는 11.6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도 장착했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2분기부터 이차전자산용의 ‘팩토리얼 성수’에 달이 딜리버리를 최초로 투입할 예정이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앞으로 사무실, 쇼핑몰 등 다양한 공간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며 공간 맞춤형 배송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최미혜**  
한국거래소  
차장



**정형구**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 행사개요

- 행사명: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 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 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주 최: (사)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 후 원: 충청북도
- 등 록: 운영사무국 M&C기획 02-721-9818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포럼에 참가한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Registration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 MP Tea 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3:50	<b>이특주</b>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회장 <b>윤건수</b>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b>김명규</b>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섹션1	13:50~15:3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b>Robert Coppes</b> 교수 (동시통역제공) "Organoids for Post-Radiotherapy Regeneration of Salivary Glands, the RESTART study" 강연2: <b>Ryuichi Okamoto</b> 교수 (동시통역제공) "Clinical application of patient-derived organoids" 강연3: <b>유종만</b>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현황과 전망" 강연4: <b>손미영</b>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인간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원천 및 활용 기술 개발"
브레이크타임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4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b>정형구</b> 미래드생명과학 이사 "재생치료제 동향 및 오가노이드의 역할" <b>임승원</b> 전 한국R협회의 상근부회장 "바이오벤처기업의 IPO 전략" <b>최미혜</b> 한국거래소 차장 "찾아가는 기술특례 상장 설명"
폐회	17:00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 한화그룹, 사업구조개편 단행

## 사업군별 '선택과 집중'... 각 계열사 전문화·경쟁력 강화

한화오션, 해상풍력·플랜트사업 양수  
한화솔루션, 태양광 장비 사업 인수  
(주)한화, 모멘텀부문 물적분할 단행  
2차전지 장비사업 초점 독립 경영

한화그룹이 사업군별 선택과 집중을 위해 일부 사업부에 대한 계열사간스물뒀을 추진한다.

한화그룹은 (주)한화의 일부 사업을 한화오션과 한화솔루션에 양도하고 모멘텀 부문을 물적분할하는 사업 구조개편을 단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한화오션은 (주)한화 건설부문의 해상풍력 사업과 글로벌부문의 플랜트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 (주)한화 모멘텀부문은 물적분할하고 태양광 장비 사업은 내재화를 필요로 하는 한화솔루션이 이를 인수한다.

이는 사업군별 전문화를 추진해 각

계열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한화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도 함께 제고하기 위해서다.

(주)한화는 자체 사업인 글로벌부문의 고부가소재사업에 집중투자하고, 사업군별 전문화·계열화 강화로 자회사들의 기업가치 증대 및 자회사 성장을 통한 배당수의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이번 해상풍력·플랜트 사업 양수로 경쟁력이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장 (주)한화 건설부문의 EPC(설계·조달·시공) 인력 등을 확보하며 기본설계 능력과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사업 개발에서 발전 및 전력 판매에 이르는 해상풍력 밸류체인도 완성한다.

한화솔루션도 (주)한화 모멘텀부문의 태양광 장비 사업 양수로 차세대 태양광 기술 관련 장비 개발에 대응이 가능해졌다. 태양광 장비 관련 사업 수직계열화를 통해 고객 신뢰도 제고는 물론,

신규 고객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룹 내 흔재되었던 태양광 사업을 한화솔루션으로 집중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태양광 사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주)한화는 모멘텀 부문에 대한 물적분할도 단행한다. (주)한화의 100% 자회사인 한화모멘텀을 신설해 2차전지 장비 사업 전문화를 추진한다.

한화모멘텀은 태양광 장비 사업의 한화솔루션 양도와 맞물려 오롯이 2차전지 장비 사업에 초점을 맞춘 독립적 경영을 이어간다. 100% 자회사로 분할되는 한화모멘텀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향후 최소 5년 간 상장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업양도 및 물적분할 안건은 5월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오는 7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롯데정보통신, 롯데이노베이트로 사명변경

롯데정보통신이 공식적으로 사명을 롯데이노베이트로 바꾼다.

롯데이노베이트가 2일 서울 가산동 본사에서 사명 선포식을 가졌다. 새 사명 '롯데이노베이트'는 한정됐던 사업 영역에 확장성을 더하고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고두영 대표는 "신규 사명은 새로운로의 변화와 끊임없는 도전을 의미한다. 혁신은 아이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행하는 것"이라며 임직원들에게 실행력을 당부했다. /롯데이노베이트

## 르노코리아, 사명·차명·엠블럼 모두 교체

'르노 누벨 바그' 기자간담회  
새 브랜드 전략 '일렉트로 팝'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과거 사명과 차명, 엠블럼 등을 모두 바꾸고 '르노코리아'로 새롭게 거듭난다.

르노코리아는 3일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르노 성수'에서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 전략과 신차 계획을 소개하는 '르노 누벨 바그'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르노코리아는 이날 간담회에서 '르노코리아'로 사명을 변경하고 공식 엠블럼도 다이아몬드 형상의 '로장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전략인 '일렉트로 팝(Electro Pop)'을 통해 국내 시장에 르노만의 독창적인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르노가 제안하는 새로운 물결이 한국에 다다랐다"며 "이제 국내 고객들도 글로벌 르노 브랜드만의 차량과 서비스를 함께 경험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르노코리아가 보유한 뛰어난 생산 및 연구개발 자산을 바탕으로 르노의 DNA에 한국의 역량을 더하겠다"며 "우리는 이를 '프랑스 생, 한국 산

(Born France, Made in Korea)'이란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르노코리아는 일부 모델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엠블럼을 적용할 방침이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XM3는 해외 판매분과 똑같이 아르카나로 변경하고 중형 SUV QM6는 이름은 그대로 두되 엠블럼만 바꾸기로 했다. SM6의 경우 향후 차량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모델명과 엠블럼 모두 기존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볼보 CMA 플랫폼을 가져와 개발 중인 중형 SUV 신차(프로젝트명 오로라)는 새 엠블럼을 적용한다.

새 브랜드 전략은 '일렉트로 팝'이라고 명명했다. 전동화·커넥티비티·안전 기술 등을 기반으로 고유의 소비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서울 성수동에 국내 첫 플래그십 매장 르노 성수를 열었다. 기존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로 운영하던 공간으로 카페·팝업스토어 등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컨셉으로 구성했다.

이날 르노코리아는 국내 생산 모델과 수입 모델을 함께 운용하며 매년 한대의 신차를 국내 시장에 출시하겠다는 신차 계획도 공개했다. /양성운 기자

## 카카오, 쇠신한다더니... '논란인사' 선임 강행

류규선 대표·정규돈 CTO 내정  
과징금 부과, 스톡옵션 행사 전적  
노조 "의사결정체계 기형적" 등 지적

카카오가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인사들을 선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류규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를 연임하고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를 본사 CTO로 공식 선임했다. 이들은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류 대표와 정 CTO의 내정 사실이 알려진 후 카카오 내 직원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공식 임기 시작 후 카카오 직원들은 계속해서 요구했던 개선 핵심 사안인 의사결정체계 및 조직구조 쇠신이 도덕적 해이로 문제를 일으킨 대표진과 가능하겠냐고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가 2020년 3월부터 단독 대표를 맡는 동안 수십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다. 지난 2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으로 과징금 90억원을, 지난해 6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른바 '카카오 콜 차단·몰아주기'로 271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규돈 전 카카오뱅크 CTO는 상장 직후 대량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기업 내부자 주식 거래를 공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의 원인이 됐다. 상장 3일 후와 2주 후 그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매도 수익은 76억원에 달한다. 이에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인 크루유니언(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전달했다.

카카오노조 관계자는 "임원에 대한 선임과 검증 절차를 공식화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의 대상을 미등기임원까지 확대하고 임원의 변경, 선임 사유에 대해 조직 내에 명확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경영진은 모든 영역에서 쇠신을 약속했다. 하지만 몇몇 계열사 대표만 교체했다.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형적인 의사결정체계 ▲기준없는 평가제도 등의 조직문화를 지적했다. 실제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을 포함해 경영진과 직원 간 대화는 지난해 12월 기준 1년이 넘었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카카오에 10여 년 근무한 직원 이모(34)씨는 카카오 내부에서 이뤄지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언제나 임원들만의 논의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직문화 쇠신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노조원은 "출산·육아 휴가를 다녀온 직원들을 셀·파트(부서)에 보내는 등 업무 연관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의사결정권자의 업무 범위, 권한, 책임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현대차, 유일한 택시전용 중형세단 출시

쏘나타 택시, 내구성 2배 강화

쏘나타 택시현대자동차는 3일 내연기관 중형 세단 중 유일한 택시 전용 '쏘나타 택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쏘나타 택시는 가혹한 주행 환경을 고려해 일반 차량 대비 약 2배 강화된 내구 시험 과정을 거쳤다. 내구성을 높인 택시 전용 스마트스트림 LPG 2.0 엔진, 택시 전용 6단 자동변속기, 일반 타이어 대비 약 20% 내구성이 강화된 타이어를 적용했다. 기존 쏘나타 뉴라이즈 택시 대비 휠베이스를 70mm 늘려

더 넓은 2열 공간을 제공한다.

9에어백 시스템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이 기본 적용되고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ccNC'도 탑재했다. 북경현대기차유한공사가 중국에서 제작한 차량으로 계약·출고 과정, A/S 등 구매 제반 사항은 내수 생산 차량과 동일하다.

현대차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택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용품 업체와 협업해 택시 표시등과 빈차등을 하나로 통합한 '스마트 택시 표시등'을 함께 선보인다.



현대차 쏘나타 택시.

쏘나타 택시의 판매 가격은 ▲법인 및 개인(일반과세자) 택시 기준 2480만원 ▲개인택시(간이과세자, 면세) 기준 2254만원부터 시작하며, 플랫폼 운송사업자 및 영업용 택시 사업자에 한해 판매한다. /양성운 기자 ysw@

## SKB, 글로벌 금융통신 인프라 구축 협약

한국자금융재와 '맞손'

SK브로드밴드는 한국자금융재와 글로벌 금융 통신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자금융재는 금융기관 간 외환,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단기자금 및 외국환중개 회사다.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지점 개설 없이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는 장소인 해외거점(POP)을 런던과 싱가포르에 구축했다. 해외거점은 비유하자면 물류센터를 해외에 전진 배치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또한 국내의 금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외 지점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자금융재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제전용회선으로 연결하고 장비임대 및 유지 보수 등 국제 통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도 통합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코스피 2700에 거래대금 증가... 증권주, 실적개선 기대감

KRX, 울들어 거래대금 매일 증가  
1월 19.4조→지난달 22.5조 '썩썩'

KB·미래에셋·NH투자 등 5곳  
1분기 브로커리지 이익 1조 넘어  
"투자자의견 긍정적으로 상향조정"

증권사들의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는데다 금리인하 기대, 밸류업프로그램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증권주들의 주가도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2600선에 머무르던 코스피 지수가 약 2년 만에 2700선까지 오르는 등 상황이 좋아지면서 울들어 거래대금과 투자예탁금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월 일평

균거래대금은 19조3710억원, 2월 22조 4146억원, 3월 22조493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투자자예탁금도 지난2월 기준 54조원을 넘어섰고 3월에 약 57조 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증권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1분기 5개사 합산 브로커리지 관련 이익이 1조421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5259억원으로 2.0% 증가하고 브로커리지 관련 이자수지는 5162억원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공개(IPO)

활황에 따른 브로커리지 업황 회복을 반영해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전망된다"며 "자체적인 주가가치 제고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의 증시 활성화 노력에 힘입은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시 시가총액 상승과 더불어 회전을 개선은 중장기 거래대금 확대를 기대하게끔 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진했던 IB 부문도 채권 발행 수요 증가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5개 증권사의 IB 부문 실적은 29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실적 기대감 증가로 올해 증권사들의 주가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은 올해 초 9만7800

원에서 12만800원으로 23.52% 상승했으며, NH투자증권은 1만160원에서 1만1460원으로 12.80% 올랐다. 한국금융지주(11.15%), 미래에셋증권(4.65%), 삼성증권(1.57%)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증권사 실적에 손상 및 총당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가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반응할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견을 긍정적으로 상향한다"며 "특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강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펀드 관련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2022~2023년 위축되었던 IB 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최원영 하나증권 디지털본부장(왼쪽)과 이정봉 서울옥션블루 대표이사가 협약식에 참여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하나증권

## 하나증권 서울옥션블루와 맞손 조각투자상품 출시

하나증권이 서울옥션블루와 미술품 조각투자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하나증권은 이번 협약으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상품 발행을 위한 자문 등 역할을 수행하며 신규 사업모델 발굴과 토큰증권발행(STO) 사업 확대에 힘을 예정이다.

서울옥션블루는 미술품 조각투자서비스 '소투(SOTWO)'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올해 서울옥션블루는 엔디 워홀의 대표작 '달려 사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출시한 바 있다.

현재 하나증권은 피나클, 오아시스 비즈니스, 프린트베이커리, 아이티센, 다날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동산, 예술품, 금은?, 모바일컨텐츠 등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조각투자 플랫폼과 증권형 토큰 비즈니스를 협업하고 있다.

최원영 하나증권 디지털자산센터장은 "서울옥션블루와 함께 금융과 미술품을 결합하며 손님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kova@

# 삼성전자 부진 여파... 코스피 상장사 순익 40% '뚝'

## 상장사 2023년 결산

코스피 615개사 순이익 80.9조  
영업익 123.8조, 24% 줄어듬

코스닥 1146개사 영업익 35% ↓  
코넥스 114개사 매출 2.3조, 7% ↓

(12월 결산법인 '23사업연도 결산실적)

(단위: 억원, %)

구분	개별기준			연결기준		
	2022년	2023년	증감률	2022년	2023년	증감률
매출액	14,875,980	14,571,191	△2.05	28,157,130	28,251,607	0.34
영업이익	719,093	395,812	△44.96	1,639,821	1,238,332	△24.4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52,589	741,725	△1.44	1,490,976	1,007,978	△32.39
순이익	613,875	750,338	22.23	1,347,622	809,074	△39.96

국내 상장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급감하면서 부진한 연간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여파가 크게 작용한 모습이다.

◆코스피, 삼성전자 부진에 역성장 구조 확대

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615곳(금융업 등 제외)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23조8332억원, 80조90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48%, 39.96% 감소했다. 매출액 자체는 2825조160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0.34%) 증가했지만, 매출액 순이익률은 2.86%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92%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코스피 매출액 9.2%에 달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감소폭이 줄어들게 된다. 삼성전자가 빠지게 된다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17조26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만 감소하고, 순이익도 65조420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30%

감소에 그친다. 매출액의 경우에는 2566조2252억원으로 직전 해보다 2.10% 증가한다.

업종별로는 17개 업종 중 건설업(19.81%), 운수장비(15.72%) 등 9개 업종은 증가하고, 의료정밀(-51.60%), 운수장고(-9.75%) 등 8개 업종은 줄어들었다. 운수장비(76.87%), 비금속광물(32.31%) 등 5개 업종 영업이익이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87.06%), 운수장고(-61.61%) 등 12개 업종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기계(186.16%), 운수장비(89.20%) 등 4개 업종의 순이익이 증가했으나 전기전자(-81.15%), 운수장고(-67.94%) 등 13개 업종은 순이익이 줄었다.

연결 기준 순이익 흑자기업은 전체 615개사 중 458개사(74.47%)로 전년(469개사)보다 11개사 줄었다.

◆코스닥도 영업익·순익 모두 '뚝'... 수익성 악화

코스닥도 상장사 1146개사의 영업이익이 9조40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1% 줄었으며, 순이익도 3조5845억

원으로 54.60% 급감했다. 매출액은 260조4556억원으로 1.20% 증가했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61%로 2.05%포인트 감소했다. 매출액순이익률도 1.38%로 1.69%포인트로 쪼그라들었다.

업종별로는 정보기술(IT) 업종의 이익이 8.92% 감소하면서 크게 줄어들었다. IT 업종에 속하는 515개사는 매출액, 영업이익 및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각각 8.92%, 52.54%, 76.48%씩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반도체 102개사(-77.97%), IT 부품 92개사(-76.69%) 등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이외 제조업(0.84%), 기타 업종(2.03%)의 매출액은 각각 119조9643억원, 56조28억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제조업은 17.79%, 기타 업종은 11.93%씩 줄어들었다. 제조업에서는 특히 제약(-70.49%), 종이·목재(-64.82%), 기계·장비(-41.33%) 등의 영업이익이 부진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연결 기준 순이익 흑자기업은 668개사(58.29%)로 전년(742개사)보다 74개

사 줄었으며, 적자 기업은 478개사(41.71%)로 74개사 늘어났다.

◆코넥스 상장사 10곳 중 6곳이 적자

코넥스 상장사 125개사 중 전기비교 가능한 114개사의 매출액은 2조2987억원으로 지난해 2조4670억원 대비 6.8% 감소했다. 영업손실도 648억원에서 2317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190억원에서 2523억원으로 확대됐다. 분석대상기업 114개사 중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43개사에 그쳤다. 전체의 62.3% 수준인 71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거래소는 금리인상·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와 바이오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코넥스 상장사들은 지난해 매출액영업이익률(-10.1%) 및 매출액순이익률(-11.0%)도 전년 대비 각각 7.5%포인트, 6.2%포인트씩 떨어졌다. 전체 기업의 자본·부채·자산 총계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148.3%로 전년 대비 8.6%포인트 늘어났다.

/신하은 기자 godhe@

## '200위클리커버드콜 ETF' 첫 분배금 지급

KB자산운용, 주당 105원

KB자산운용이 6개월 간 지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가 지난 2일 첫 분배금을 지급했다.

KB자산운용은 3월 27일까지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를 매

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당 105원의 분배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분배율은 약 1.01%로, 해당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1개월 만에 약 100만원의 분배금을 받게 된 셈이다. 분배락일인 3월 28일의 시가는 1만305원이었으나, 주가가 꾸준히 올라 4월 2일 기준 증가 1만415원으로 마감했다. 상장 이

후 분배금을 고려한 누적수익률이 5%를 넘어선 셈이다.

지난달 상장한 'KBSTAR 200위클리커버드콜 ETF'는 국내 지수를 활용한 ETF 중 처음으로 만기가 1주일 이내로 짧은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 상장지수펀드(ETF)다. 추종지수는 KB자산운용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개발한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다. 이에 거래소로부터 지수의 우선적 사

용권을 부여받아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지수의 독점적 사용 지위를 가진다.

'코스피200 위클리 커버드콜 ATM 지수'가 산출된 2019년 이후 현재까지의 월 평균 옵션 프리미엄은 월 3% 수준이다.

김찬영 KB자산운용 ETF사업부장은 "분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은 비과세 대상인 옵션 프리미엄인 만큼 절세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에게는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창업생태계 활성화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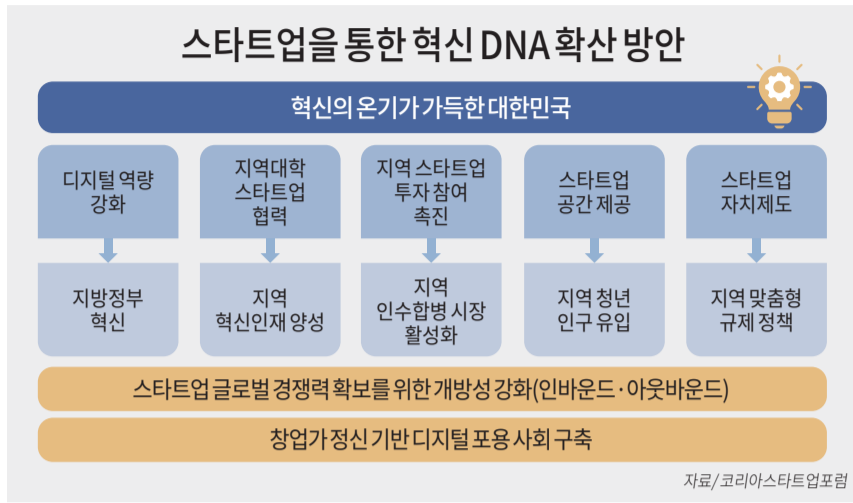
# 스타트업계, '벤처투자펀드 100조 조성' 등 정치권에 제안

코스포, 정책연구 자료집 발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 혁신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 확대 등 담겨

스타트업계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벤처투자펀드 100조원 조성, 스타트업하기 좋은 '5대 거점 도시' 조성, '스타트업비자'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우수 인재 영입 확대 등의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 따르면 '스타트업을 통한 혁신 DNA 확산 방안-혁신의 온기가 가득한 대한민국' 정책연구 자료집을 최근 발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 혁신으로 지방소멸 대응 ▲지역 스타트업 투자 생



태계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자유로운 외국인·자본 유입으로 창업·투자 활성화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의 신규 갈등 해결 등을 위한 내용이 두루 담겨 있다.

코스포는 우선 지방소멸을 해

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지방 비중을 50%로 늘리고, '디지털'을 통해 지방 정부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마다 부시장, 부군수 급으로 '최고혁신책임자(CIO)'를 도입해 창

업·혁신 생태계를 지원하면서다.

'청년 코리빙'(coliving) 등 다양한 복지 관련 민간 스타트업 사업을 정부 예산 사업과 연계·유치해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이디어로 나왔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지역 민간 벤처금융 활성화 ▲지역 민간 벤처금융 설립을 위한 제도 구축 ▲투자 자금 회수시장 활성화 ▲기업벤처금융(CVC) 육성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그러면서 지방정부 재정의 5% 수준을 지역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

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 인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이들의 재직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제도 마련, 외국인 유학생 연계 플랫폼 구축 등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코스포 관계자는 "스타트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은 규제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서둘러 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엑셀러레이터업계 "모태펀드, AC 투자 비중 더 확대해야"

엑셀러레이터협, 산업백서 발간  
"AC위한 모태펀드 확대" 1순위  
올해 정책 변화 대해 '부정' 많아

엑셀러레이터(AC)업계가 한국벤처투자 운영 모태펀드의 업계 투자 확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전체 모태펀드 가운데 5~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부문 투자로는 초기 창업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을 종합

적으로 제공하는 창업기획자를 말한다.

3일 (사)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가 최근 발간한 '2023 대한민국 엑셀러레이터 산업백서'에 따르면 '올해 엑셀러레이터 생태계를 위해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25.4%가 '엑셀러레이터 위한 모태펀드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이외에 ▲투자의무비율, 투자조건 등 규제 완화(20.4%) ▲세컨더리 펀드 등 회수시장 다각화(13.9%) ▲루키 엑셀러레이터 육성 정책 마련

(10%)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모태펀드의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지만 참여자를 더욱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초기 엑셀러레이터들은 레퍼런스가 없어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도 없고 대형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펀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벤처시장에 또다른 마중물 역할을 하는 민간자금이야 그렇다치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모태펀드는 좀더

'모험적'인 분야 투자를 위해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에 따르면 모태펀드에 참여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는 전체가 50~60곳 안팎으로, 가뜰이나 적은 투자금을 갖고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엑셀러레이터를 둘러싼 생태계 환경 변화와 관련해 업계는 큰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2.9%가 '변화없음'이라고 답했다. 특히 '부

정(매우 부정 포함)'이 29.8%로 '긍정(매우 긍정 포함)'(17.3%)보다 많았다.

아울러 투자와 관련해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LP확보)'와 '엑셀러레이터 전용 모태펀드 확대' 모두 부정적인 답변이 '긍정'보다 많았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엑셀러레이터 총 투자금액은 6671억원, 총 투자건수는 2377건으로 집계됐다. 총 투자기업 숫자는 1631개였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엑셀러레이터는 총 461개사다.

/김승호 기자

### 한국여성벤처협회 유망 여성스타트업 발굴

한국여성벤처협회가 '2024년 여성특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성 스타트업을 24일까지 모집한다.

3일 여벤처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민간 창업기획자를 지정해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의 여성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연계와 맞춤형 창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벤처는 지난달 더인벤션랩, 김고스프링, 퍼스트게이트,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를 여성특화 전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팅)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20여개 여성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업 맞춤형 교육·멘토링, 1000만원 이상의 사업화 자금 지원, 협력네트워크 등 각 운영기관별 보유하고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3개사 이상의 직접(초기) 투자부터 스케일업을 위한 연계·후속투자까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보육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 기보, 기술혁신 종합지원체계 마련

기업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은행과 기술혁신 생태계 활성화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는 중소기업은행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협약'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및 경영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 출연금 및 보증료지원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 필요기업에 보증료지원(0.5%p, 3년간)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고정보증료율(0.7%, 3년간) 및 보증료지원(0.7%p, 3년간) ▲아기유니콘 선정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및 고정보증료율(0.7%) 적용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를 초기·중기·성숙기로 세



김중호 기보 이사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분화해 총 7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기보는 지난해 4월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분야를 공동으로 발굴하기 위해 정책금융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장기·저리, 동행지원, 취약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협약보증을 시행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해왔다.

/김승호 기자

### 명품 글로벌 도시 조성해 지역소멸 방지

중기부, 글로벌 상권 창출팀 모집  
첫해 55억, 5년간 최대 155억 투입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창의적 소상공인들의 노력을 돕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사람을 끌어들이는 '글로벌 상권'을 만들 수 있도록 '글로벌 상권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이를 수행할 글로벌 상권 창출팀 등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해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얼마전 주재한 '제2차 우문현담 간담회'에서도 지역상권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참석, 정부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해

대표 성공모델인 '글로벌 상권'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신설한 '글로벌 상권 창출팀'과 '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 공모한다. 글로벌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원,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상권이 되려면 매력적인 공간기획 외에도 창의적 소상공인 육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기존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 외 상권활성화사업, 매칭용자, 동네펀딩 등 10개 관련사업을 5년 내내 최대한 동시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도 원활한 협력이 이뤄지도록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이 한 팀이 돼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지원해야 하며, 지원 가능 지역은 점포수 30개 이상의 상업지역, (예비)자율상권 구역 또는 (예비)지역상생구역이 대상이다.

한편 로컬브랜드 창출팀의 경우 작년과 유사하게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데뷔 30주년 기념

# 나윤선 Elles 콘서트

**DATE:** 2024.04.17 (WED) 19:30

**VENUE:** 롯데콘서트홀

**TICKET:** LOTTE CONCERT HALL **yes24**

R석 120,000원, S석 100,000원, A석 80,000원, B석 60,000원  
문의 070-8671-8103



**Alive!** 엘라이브! 맥스 바이탈

나윤선 "Elles" 콘서트 관람 고객 모든 분들께  
고급 액상 멀티비타민 엘라이브 맥스바이탈을 드립니다  
[7개입 선물세트]







# 현대백, 지주사 '현대지에프홀딩스' 출범... 매출 40조 목표

자회사 지분 보유 순수 지주회사  
정지선·정교선 신규 선임 의결  
신사업 발굴해 성장 방향성 제시

현대백화점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 전환한다.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출범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완성하는 동시에, 오는 2030년까지 매출 4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중인 '비전 2030' 달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3일 그룹의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이날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각각 열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겸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의 사내 이사 신규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이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최대주주로서 이사회에 합류해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장호진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사장과 사내 이사에 선임돼, 정지선 회장과 함께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일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에도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며, 지주회사 대표이사를 맡게 된 장호진 사장은 현대백화점과 한샘 등 주력 계열사의 사내이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사명인 현대지에프홀딩스(HYUNDAI G.F. HOLDINGS)는 그룹 전체 임직원들이 100년 그 이상 지속되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새로운 역사와 미래(Future)를 만들어 나가는(Generate)에 중추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현대지에프홀딩스는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주력 계열사인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를 자회사로 편입시켜, 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아우르는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이 현물출자에 참여해 지주회사 지분 38%와 28%를 각각 보유하게 됐다.

이날 공식 출범한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회사로 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순수 지주회사로, ▲유통 ▲패션 ▲식품 ▲리빙·인테리어 등 현대백화점그룹 내 27개 자회사(국내 기준)를 편입했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 등 그룹 내 자회사의 기업 가치 제고와 각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재무·투자·사업개발·법무·홍보·인사 등의 경영자문과 업무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고, 단

일 컨트롤 타워로서 그룹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와 투자 및 리스크 관리도 맡게 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그룹의 미래사업이 될 신사업을 발굴해 성장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수·합병(M&A)도 추진하게 된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자산(별도기준)은 약1조5000억원으로, 조직은 3실(경영전략·홍보·DT추진), 3담당(미래성장전략·사업개발·재무전략), 11팀(재무전략·재경기획·투자기획·투자관리·법무기획·사업개발·경영개선·인사기획·홍보·DT전략)으로 구성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투명하고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제인 지주회사 출범을 계기로 그룹의 경영 효율화는 물론, 시장에서 저평가돼 있는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단일 지주회사 중심의 새로운 지배체제 구축으로 경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각 계열사간 시너지 또한 극대화돼 '비전 2030' 달성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등 여러 자회사들이 우수

한 사업 경쟁력과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지주회사의 보유 자원을 각 계열사에 효율적으로 배분해 그룹 전체의 경영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상승도 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또한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 출범을 계기로 주주 가치 제고와 주주권의 극대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의 경우 대표적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리잡은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으며, 그룹 내 모든 상장사가 참여하는 통합 기업설명회(IR)도 매년 정례화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초 13개 상장사 재무담당 임원들로 구성된 '그룹 가치제고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에 있다"며 "앞으로 배당 확대와 무상증자 등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쿠팡 고물가 극복 프로젝트 전 카테고리 최대 50%

쿠팡이 고객들의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상품 전 카테고리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을 담은 '더블 할인 데이'를 오는 5일까지 진행한다.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1% 상승하는 등 지속되는 고물가 속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로켓프레시 신선식품을 필두로 식품, 생필품, 주방, 패션·뷰티, 가전·디지털, 스포츠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다채로운 상품들을 최대 50% 할인 혜택가에 선보인다.

단 하루 특별한 혜택을 담은 '원데이 특가' 코너에서는 3일간 매일 달라지는 9개의 대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식품, 생필품 등을 매일 오전 7시에 한정 수량 특가로 내놓는다.

'반값 특가' 코너에서는 다양한 상품들을 최대 50% 할인 혜택가, 즉 반값에 만날 수 있다. 할인에 할인을 더한 '카테고리 특가' 코너는 카테고리별 베스트 셀링 상품과 인기 상품을 즉시할인 혜택으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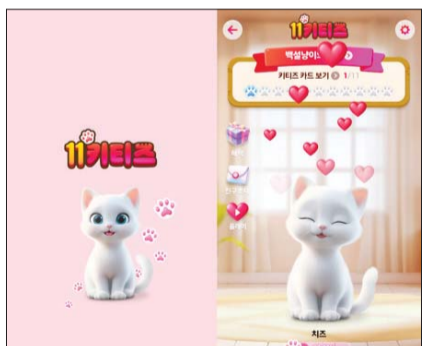
해당 프로모션 페이지는 쿠팡 앱에서 '더블할인데이'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 "랜선 집사되고 상품도"... 11번가, '11키티즈' 게임 오픈

'게이미피케이션' 기반 록인 전략  
고객, 총 11마리 고양이 순차 육성  
11번가 내 미션 수행해 게임 진행

11번가가 '게이미피케이션'에 기반한 고객 록인(Lock-in) 전략을 이어간다.

11번가는 쇼핑과 고양이 육성이 접목한 새 앱테크형 게임 이벤트, '11키티즈'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11키티즈'는 고객이 각기 다른 외모와 개성을 가진 아기 고양이들을 기르는 '랜선 집사'가 되어, 11번가 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제공받은 먹이와 간식으로 고양이를 육성하는 게임 이벤트다.



11번가, 새 앱테크형 게임 이벤트 '11키티즈' 오픈. /11번가

'11키티즈'는 각 단계별로 한 마리씩, 총 11마리의 아기 고양이를 키울 수 있다. 고객이 고양이를 육성하는 과정

에서 수집하게 되는 '키티즈 카드' 조각 11장을 모두 모으고 각 단계에 따라 추가 과제를 달성하면 해당 고양이의 육성이 최종 완료되며, 육성이 완료될 때마다 고객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

11번가는 각 단계에 따라 ▲고객이 직접 선택한 선물(6년근 홍삼정, 프리미엄 육포, 호정가 옛날 도나스, 멀티슈, 베스킨라빈스 e쿠폰, 버거킹 e쿠폰 등 택 1) ▲11번가 할인쿠폰 ▲모바일 상품권 ▲11키티즈 스페셜 굿즈 등의 육성 완료 보상을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첫 선보여 5개월간 운영된 '11클로버'는 누적 접속횟수 1억

2800만회를 기록하면서, 11번가 주요 서비스(슈팅배송, 신선밥상, 유아력스) 내 고객들의 상품 탐색 빈도(페이지뷰)를 높이는 수십 배 넘게 급증시키는 등 전반적인 플랫폼 활성화를 이뤄냈다.

매주 500만 포인트 로또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집일포' 이벤트도 오픈 3주만에 참여 고객수가 55만 명을 돌파, 지난 주 실제 1등 당첨자가 나오며 고객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실제 로또 당첨번호가 발표되는 토요일의 경우, 11번가 앱 하루이용자수(DAU)가 오픈 이후 전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등 트래픽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1~2인 가구 위한 소포장 신선식품 '하루' 출시. /SSG

## SSG닷컴 소포장 신선식품 '하루' 1~2인 가구 취향저격

SSG닷컴은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신선식품 '하루'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하루'는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을 소포장(1개씩 날개 포장)한 기획상품이다. 수도권 중심(네오센터 출발) '쓱배송' 및 '새벽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하루과일'은 사과(215g), 배(750g), 한라봉(250g), 전혜향(250g), 참외(250g) 등 간식으로 먹기 좋은 대표 과일 5종을 엄선해 2000~8000원대로 판매한다.

'하루채소'는 간마늘(80g), 양파(240g), 대파(200g), 참타리버섯(170g), 청랑고추(60g), 오이맛고추(80g) 등 필수 요리 재료 6종을 각 1000원 균일가로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 홈플러스, 온라인 슈퍼세일 '홈플러스'... 먹거리 등 최대 반값

홈플러스가 3일 고객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흥행 돌풍을 일으킨 창립 27주년 단독 슈퍼세일 '홈플러스'를 온라인에서 이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1주차 행사를 통해 ▲4~5일 잡곡 50% 할인 ▲5일 '보리 먹고 자란 돼지(이하 보떡돼)' 삼겹살·목심 50% 할인 ▲4~8일 하기사

겨귀, 유아간식 1+1 행사 진행 및 1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 마일리지 증정 ▲8~10일 생연어, 육포, 쥐포, 어포, 주꾸미볶음, 손질낙지 등 수산물 최대 50% 할인 ▲9일 제과음료 행사상품 2만원 이상 구매 시 7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온라인 슈퍼세일 홈플러스' 4일부터 10일까지는 'LG전자 쓱싹클린

페스타'도 진행한다.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청소기를 한정 수량으로 최대 5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또 인사이드 뷰티다바이스 '고주파 갈바니 마사지기', '아쿠아 필링기', '넥케어 팔사 갈바니 마사지기' 3종을 500대 한정으로 60% 할인가에 내놓는다.

이어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2주

차 행사에서는 ▲10일 농협안심한우 전품목 50% 할인 ▲12일 도드람한돈 삼겹살·목심 50% 할인 ▲15~17일 진미채, 황태채, 감자반,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최대 50% 할인 ▲16일 아이스크림 1+1 ▲17일 '보떡돼' 삼겹살·목심을 50% 할인한다.

또 11일부터 17일까지 'LG전자 쿠강대전'을 열고 식기세척기, 오븐, 전자레인지 등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10% 할인한다. /최빛나 기자

#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아톰' 국가첨단전략기술 인증 획득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오가노이드 분화·배양 기술력 입증  
세계 지원 등 안정적 성장 발판 마련  
“빠른 상용화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인증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군으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2일 자사의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아톰(A-TORM)'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인정서를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유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개 분야의 총 15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한다.

이 중 바이오 분야는 2개의 기술만이 선정됐는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아톰은 2개의 바이오 분야 기술 중 '고품질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적용되는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에 해당되

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또 다른 바이오 분야 기술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있는 항체 대량생산 기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기술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제도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당 기술과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된 산업은 투자, 인력 양성, 세계 지원 등 범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측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화가 가능한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 수준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의 시장성, 산업적 중요성, 파급효과에 대하여 다양한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는 ▲생산기술 ▲품질수준 ▲성능 ▲활용성 ▲안전성 및 유효성

▲임상계획 및 상용화 수준이라는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해 기술성 평가에 통과하였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4개 첨단산업의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해 2027년까지 550조 원 이상의 투자와 인허가 등 규제 완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정책 수립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4년에는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하고 준공할 계획을 공개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분야에 첨단전략기술로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특화단지 선정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측 관계자는 “재생치료제 생산을 위한 부지가 제공되고, 다양한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시설이 설치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재생치료제 개발과 생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좀 더 빠른 상용화를 통한 시장 우위 포지셔닝 및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캐싱턴리조트 경주 “경주의 봄 만끽하세요”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캐싱턴리조트 경주에서 벚꽃 개화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조이풀 피크닉'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피크닉을 테마로 샌드위치와 전동스쿠터 이용권 등 먹거리와 놀거리가 모두 포함돼 경주의 봄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랜드파크

## 신제품

### 정관장 “‘홍삼톤 류’로 피로 관리하세요”

홍삼톤 제품 피로개선 기능 강화

정관장이 전통 원료와 과학적인 기술력을 접목해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정관장은 피로 개선을 위한 신제품 '정관장 홍삼톤 류(사진)'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홍삼톤 류는 정관장 6년근 홍삼에 독활, 겨우살이, 천궁, 우슬, 두충 등의 엄선된 13가지 부원료를 더한 건강기능식품이다. 기존 '홍삼톤' 제품에 피로개선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정관장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공식 인정한 정관장 홍삼의 피로개선 및 혈행개선 기능이 피로 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준다.

이번 신제품은 '홍삼톤' 브랜드 최초로 개발한 액상 앰플 형태로 구성됐다. 한 병 용량은 50ml다. 하루 한병 섭취로 남녀노소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일상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정관장 측의 설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지엔티파마, '크리스테살라진' 임상 2상 승인

(퇴행성 뇌신경질환 치료제)

중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대상 진행  
곽병주 대표 “기억회복 효과 기대”

지엔티파마는 퇴행성 뇌신경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크리스테살라진'의 임상 2상 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

임상 2상은 인지기능장애를 겪고 있으면서 뇌 아밀로이드 양전자 단층촬영(PET) 영상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중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다국적 임상을 진행한다. 국내 임상 시험 책임자는 인하대병원 신경과 최성혜 교수이다. 대상 환자는 이중 눈가림 방식으로 위약과 크리스테살라진을 1일 1회, 26주 동안 경구 복용해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한다.

크리스테살라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뇌프론티어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발굴한 치매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이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작용과 mPGES-1을 억제해 염증인자인 PGE2 생성을 차단하는 소염작용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표적 합성신약이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한 인지 기능장애증후군을 앓는 반려견이 크리스테살라진을 성분으로 한 '제다큐어'를 4주 이상 복용하면 인지능과 사회활동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다큐어는 2021년 2월 국내 최초로 동물용의약품 합성신약 품목허가를 받

아 현재 1870여개 동물병원에서 판매되고 있다. 시판 후 조사 결과에서도 제다큐어를 6개월 동안 복용한 인지 기능 장애증후군 초기, 중기, 말기 반려견에서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인지 기능 장애 개선 효과는 전주기적으로 확인됐다.

지엔티파마 곽병주 대표이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치료 약물은 일부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뿐 아니라 효과도 초기 단계 환자에게서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억을 잃는 반려견에서 확인된 크리스테살라진의 약효가 이번 임상 2상에서 재현돼 중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기억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 CJ제일제당, '햇반·맛밤' 소비자 점점 확대

얼티브 고단백 음료 2종 출시

CJ제일제당의 식물성 음료 브랜드 '얼티브'가 국민 브랜드와 손을 잡으며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CJ제일제당 '얼티브'가 햇반과 맛밤을 활용한 고단백 음료 2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햇반' 브랜드를 활용한 '얼티브 프로틴 쌀밥맛'은 국내산 쌀분말을 사용해 고소하고 담백한 밥맛을 구현한다. '맛밤'과 협업한 '얼티브 프로틴 밤맛'은 국내산 밤페이스트를 넣어 달콤하

고 고소한 밤 향이 특징이다.

CJ제일제당이 지난 2023년 6월 출시한 '얼티브 프로틴'은 한 팩 당 단백질 함량을 21g으로 높은 고단백 식물성 음료다. 당류는 들어있지 않고 필수 아미노산 8종과 CJ제일제당이 독자개발한 L-아르기닌을 함유하고 있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단백질 시장이 다양해지면서 '맛'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이번 신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맛을 활용해 단백질 음료를 새롭게 재해석한 제품이라는 것이 CJ제일제당 측의 설명이다.



얼티브 프로틴 '햇반'과 얼티브 프로틴 '맛밤'  
/CJ제일제당

이번 신제품 2종은 전국 편의점과 CJ더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다.

CJ제일제당은 출시를 기념해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를 전개하고 오는 9일에는 G마켓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진행한다.

/이청하 기자

## 아이오페, '스킨 부스터 앰플 필 패드' 선포

피부 전문기관 수준 필링 구현

아모레퍼시픽의 고효능 스킨케어 브랜드 아이오페가 피부 스케일링 패드인 '스킨 부스터 앰플 필 패드'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피부 전문기관에서 진행되는 필링의 2단계를 그대로 담기 위해, PEEL 패드와 FILL 패드 2-스텝으로 구성했다.

필링의 첫 단계로 활용 시 효과적인

PEEL 패드에는 4세대 필링 성분인 L-HA를 비롯한 AHA, BHA, PHA로 이루어진 '멀티 액시드 성분'이 총 15% 담겼다. 묵은 각질과 화이트-블랙헤드와 같은 피지는 물론 모공 속 노폐물까지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하는 FILL 패드는 모공 관리 후 필요한 에센셜 관리로 보습, 진정,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앰플 성분을 담아 피부 본연의 맑은 광채를 되찾아준다.

/이청하 기자

## 에이블씨엔씨, '더퓨어 캔디' 3종 출시

다이소 전용 색조 화장품 제품군

에이블씨엔씨가 다이소와 두 번째 협업에 나섰다.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블씨엔씨의 화장품 브랜드 '어퓨'는 군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다이소 전용 색조 화장품 '더퓨어 캔디' 제품군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에이블씨엔씨 어퓨는 지난 7월 다이소와 협업해 기초 화장품 '더퓨어 티트

리' 라인을 선보인 바 있다.

어퓨에 따르면 '더퓨어 캔디'는 캔디를 닮은 반짝이고 투명한 광채와 과즙을 바른 것처럼 생생한 컬러 발색이 특징이다. 제품군에는 티트, 컬러밤, 워터치크 총 3종이 있다.

이번 신제품들은 피부톤에 따른 맞춤형 색상으로 구성돼 본인의 퍼스널 컬러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또 모두 균일가 3000원이 적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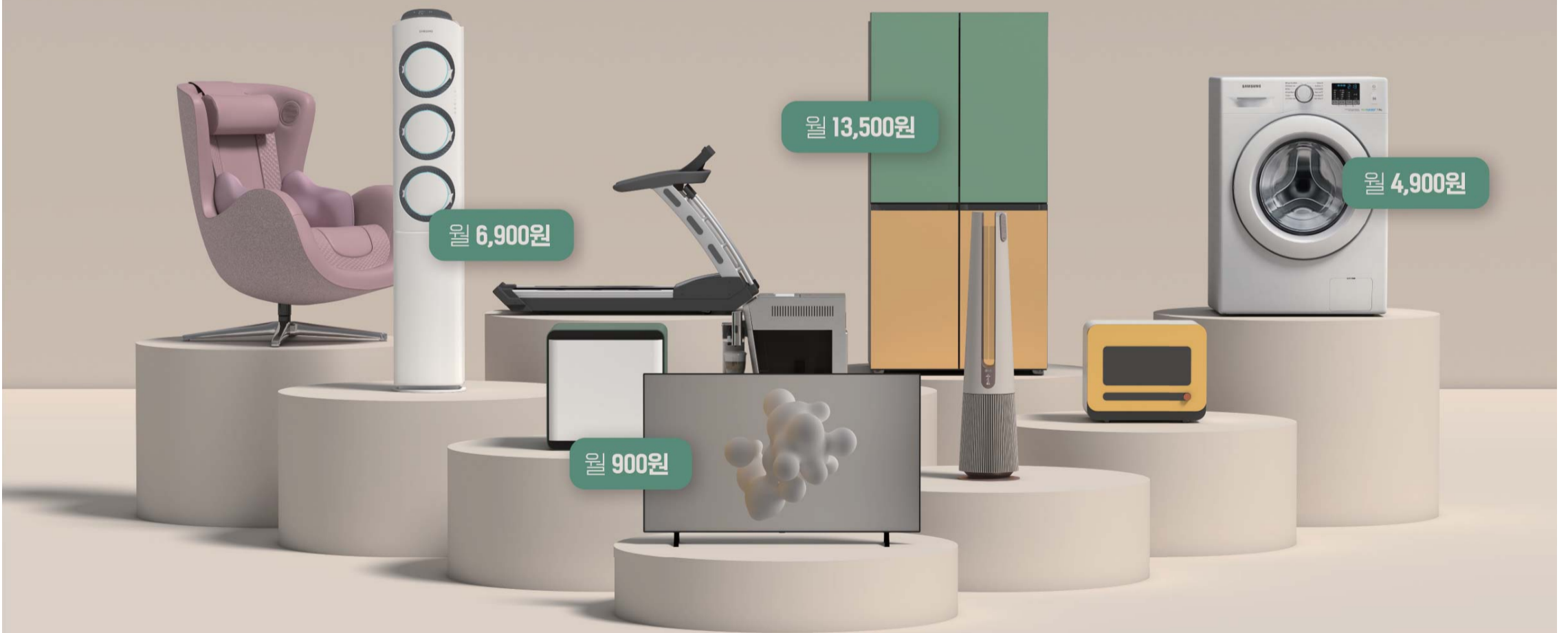
/이청하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

상담문의 1855 - 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 “대기업-스타트업 협업때 혁신 일켜... 프리 IPO까지 지원”

## ★ 빛나는 인터뷰

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



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

/손진영 기자 son@

‘빛나는 인터뷰’의 세 번째 주인공으로 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를 만나봤다. 롯데벤처스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투자·육성하고 계열사와의 오픈노베이션 활동을 지원하는 롯데그룹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다.

### ◆롯데액셀러레이터에서 롯데벤처스로 사명 변경

“롯데벤처스는 초기 단계부터 프리IPO 단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의 말이다. 전 대표는 초기 투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벤처스로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롯데벤처스는 스타트업이 시드에서 시리즈 A나 B, C로 발전한 다음에도 지원을 이어간다.

롯데벤처스의 대표 사업에는 엘캠프, 미래식당 등이 있다. 특히 엘캠프를 통해 롯데벤처스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1개 기수, 총 135개 스타트업을 배출했다. 엘캠프 7기까지의 기업 가치는 입주시점 대비 약 3.3배 성장한 1조62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전 대표는 “롯데벤처스가 초기 단계에서 발굴하지 못했지만 시리즈B, C 단계에 있는 훌륭한 스타트업을 만나면 초기 투자와 관계없이 지원한다”고 말한다. 투자 대상과 투자 범위를 보다 폭넓게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 ◆롯데벤처스는 스타트업을 왜 지원할까

전 대표는 “대기업의 생존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아무리 창의적인 기업도 규모가 커지고 외형이 성장해 대기업이 되면 창의성은 떨어지게 돼 있다. 마치 중력의 법칙과 똑같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은 혁신에 있어서는 스타트업의 역동성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예를 들어 세계적 기업인 구글의 전략을 살펴보면, 구글은 구글 엑스라는 조직을 거쳐서 구글 벤처스를 출범시켰다. CVC를 만들어서 ‘혁신’을 외주를 주는 것이다. 롯데정보통신의 경우에도 설립부터 지금까지 28년간 유지했던 사명을 롯데이노베이트로 바꿨다.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혁신’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의지다. 이런 기업 문화는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주소

전영민 대표에 따르면 국내 창업 생태계는 점점 발전하고 있다. 그래프로 그리면 x축과 y축에서 양의 값만 가지는 우상향 그래프라는 것이다. 그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필요한 조건들을 설명하며 인터뷰를 이어갔다.

우선 기반 기술의 등장이다. 19세기 중후반 토머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을 때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20세기 말 컴퓨터가 교수 연구

실에서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시대가 열릴 때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창업했다. 이후 2007년 아이폰의 등장은 차세대 스타트업을 출현시켰다. 최근에는 로봇, 인공지능, 우주 기술 등이 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 대표는 “기반 기술이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현 시점에서 국내 공대를 졸업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엔지니어들을 육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동시에 여러 대기업들이 CVC를 만들면서 소위 자금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는 더욱 활발하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다음으로는 지속가능성이다. 전 대표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해 현금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외부 지원에 계속 의존하는 조직은 비영리 단체에 불과하며 투자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그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라는 안정망이다”라고 말한다. 모든 스타트업이 다 성공하지는 않는 게 사실이지만 그 스타트업 생태계 안에서 또다른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면서 완충 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롯데벤처스도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혁신 스타트업 발굴·투자·육성 시리즈 A·B·C 발전해도 지원 8년여 간 135개 스타트업 배출

실패해도 ‘재도전’ 선순환 구조 스타트업 생태계 건강하게 만들어

롯데그룹, 60여개 계열사 갖춰 시설·인프라 등 공유, 성장에 도움

스타트업이 태동하는 향후 10년 대한민국 100년 미래 책임질 것

### ◆롯데벤처스만의 경쟁력

금산분리(金産分離)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어 금융회사의 일종인 CVC 설립에도 제한됐다. 하지만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 투자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법을 개정해 일반주회사도 제한적으로 CVC를 소유할 수 있다.

이처럼 CVC 관련 법이 개정된 지는 2년이지만 롯데벤처스는 일찍이 투자사로 발돋움해 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창업 보육 기업을 구상해달라고 지시하면서 2016년 설립된 것이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롯데미래전략연구소에 “롯데를 망하게 할 기업을 찾으라”며 자본금 150억원 중 50억원을 사재로 출연했다.

전 대표는 “조금 더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점이 롯데벤처스의 강점”이라고 말한다.

또 그는 “CVC는 기본적으로 모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 포커스를 맞추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그룹에는 60여개 가까운 계열사가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인프라, 전문가 등을 스타트업과 공유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스타트업 성장 속도를 올릴 수 있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은 사회적 혁신을 일으키는 방법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전 대표는 “한편 국내 CVC들과의 관계는 경쟁보다는 보완적인 측면이 더 적합하다. 실제로 롯데벤처스 심사역들에게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만약 반도체를 설계하는 어떤 훌륭한 스타트업이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삼성전자에 먼저 전화해 주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다른 CVC들과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주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벤처스는 해외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베트남,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순서대로 해외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 또한 기존 롯데그룹이 해외에서 갖춰 역량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의 기업등록발급승인을 받은 외국계 벤처투자법인인 롯데벤처스가 최초다. 롯데벤처스는 양국 스타트업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 대표는 “미국, 중국 등과 비교해 국내 스타트업만 놓고 보면 작은 시장이다. 하지만 여러 국가들을 연결해 하나의 시장으로 구축하면 그 안에 있는 기술과 인재들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은

“성취감보다는 흐뭇함을 느낀다. 창업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유지했던 자기 삶에 대한 결단력과 자기 아이디어에 대한 믿음과 소신이 있는 진취적인 사람들이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20년, 30년 뒤에 또 다른 롯데를 만들어낼 텐데 그런 사람들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기업에도 분명 생로병사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항상 스타트업이 변화시켜 왔다고 본다. 모든 기업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노화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 하면 퇴장한다. 그 빈자리를 새 꿈을 가진 젊은 기업이 다시 채운다. 지금처럼 스타트업이 태동하는 향후 10년은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다.”



롯데벤처스 대표 사업인 엘캠프 참가자들과 전영민 대표(앞 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벤처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25년 만에 강진 발생한 대만... 1명 사망·50명 부상 /사진 뉴스스  
▲대만 강진에 “피해자 진심으로 위로... 지원 용의 있어”

▲美·日정상회담, 안보·첨단기술 등 ‘전략적 협력’ 강화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서 구호단체 직원 7명 숨져



▲美바이든 “최악의 전쟁”... 이스라엘 구호트럭 폭격에 강력 비판 /사진 뉴스스  
▲우크라이나, 대러 손해배상 청구 기구 가동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지에프홀딩스'  
지주사 출범  
L1



Life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재생치료제 '아톰'  
국가첨단기술 인정  
L2



# '월 만원에 10년 거주'... 전남도, 만원주택으로 청년 잡는다

고흥, 보성, 진도, 신안 4곳 선정  
청년층 주거안정 위해 주택공급  
최초 4년 거주, 출산 시 3년씩 연장



전라남도 주거정책 심의위원들이 진도에서 '전남형 만원 주택' 현지 조사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전라남도가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은 가운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남형 만원주택 100호를 공급하겠다는 김영록 도지사의 발표 이후 발 빠르게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9개 군이 응모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흥, 보성, 진도, 신안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들은 도심지에 위치해 학교 및 보육시설, 판매시설, 주민 편의 시설 등 입주 청년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이 주요 선정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흥과 보성은 나로우주센터와 관련된 우주항공산업과 스마트관광 관련 종사자, 순천대학교의 글로벌30 선정에 따른 일자리 수요 증가 전망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진도와 신안은 섬 지역 숙박형 국내 관광 활성화로 관광레저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요 증가와 수산업업을 위해 귀여하는 청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등이 이번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청

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배려하기 위해 추진되는 만큼, 최초 거주 기간도 4년으로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2년보다 길다. 신혼부부는 아이를 한 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은 월 임대료를 1만 원만 부담함으로써 절감된 주거비를 모아 자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늘봄학교 2800개교 운영... 초1 74% 참여

시범시행 한달 간 100개교 늘어  
외부강사 등 고용창출 효과도

초등학생 자녀를 최장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1학기 시범시행 한달 동안 100개교 가까이 늘어 2838곳으로 확대됐다. 전국 초등학교 46% 규모다. 참여 학생은 13만6000명으로 초등 1학년 중 74.3%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3월 이런 내용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을 발표했다.

당초 늘봄학교는 지난 3월 전국 6175개 초등학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실제로는 예상보다 37% 많은 2741개 학교에서 시작했으며,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은 이달 참여학교를 38곳에서 최대 150곳으로, 광주에서는 32개교에

서 45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1학기 안에 전체 초등학교 절반에 가까운 48%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최대 2963개교가 참여하게 된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3월 4일 대비 1만4000명이 증가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생 중 74.3%인 13만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이다.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학기 초 1만900명에서 현재 1만 7197명으로 지난 한 달간 약 50% 증가했다. 이 중 81.3%가 외부 강사이고, 18.7%는 희망 교원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의 현장 정착 지원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 서울시, 가임기 남녀 임신준비 무료 지원

지난해 3만명 지원... 올해도 이어가

서울시가 모든 가임기 남녀에게 임신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해 주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지난해 참여자가 3만명에 육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도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모든 가임기 남녀대상으로 사전 임신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습관, 음주, 흡연력 등 임신 고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건강설문조사 결과 총 4만3436건을 전문기관(대사중후군 센터(비만), 정신보건센터(우울증), 금연클리닉 등 6개 기관)으로 연계했으며, 임신하기 전 위험 요인을 증세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난소나이검사, 정액검사 등 생식기능 검사 뿐만 아니라 풍진, 성병검사 등 임신 전 필요한 혈액, 간기능, 신장기능, 갑상선기능 등 일반건강검진 여자15종, 남자14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현진 기자

## "만개한 벚꽃과 함께 경주 보문단지 달려요"

경주시-경주시체육회, 마라톤 개최  
보문 호숫가 도는 아름다운 코스

'제31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6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및 도심 일원에서 만개한 벚꽃과 함께 펼쳐진다.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가 함께 개최하는 경주벚꽃마라톤대회는 국내·외 1만 2500여명이 일찌감치 참가 신청을 하면서, 접수 50여일 만에 조기 마감됐다. 올해 대회는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풀코스는 제외하고 하프코스과 10km, 5km 세 부문만 개최한다. 참가자 접수 결과 5km는 전년 대비 88%로 다소 감소한 반면, 10km는 전년 대비 119%, 하프는 1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라톤 코스로 알려진 보문호를 가족·연인과 오래도록 뛰고 싶은 참가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대회는 미국과 캐나다는 미주권은 물론 중국, 홍콩, 베트남, 방콕 등 31개국 700여명의 외국인들이 신청서를 내면

서,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마라톤대회로 자리매김한 것을 실감케 했다.

종목별 코스를 살펴보면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앞을 출발하는 5km는 보문바르게살자 표지석을 반환해 달리며, 10km는 보문 호숫가를 한바퀴, 하프는 경주여고 삼거리에서 반환해 돌아오는 코스다. 특히 대회 당일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코스 곳곳마다 벚꽃비가 내리는 장관이 연출될 전망이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 경기도, 소득 30% 증대 이끌 농어업인 모집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각 분야 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경기도가 농어업소득 향상을 위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로 농어업인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위해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간 소득증대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선발된 농어업인은 ▲맞춤형 컨설팅 ▲분야별 교육 ▲커뮤니티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컨설팅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개인별 소득증대 전략을 수립하고 3년간 각 분야 전문가의 1:1 코칭으로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자격요건은 경기도내 주소지와 사업장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중 연간 소득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으로 소득증대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오디션 선발 50명과 수시모집 250명으로 진행된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오늘의 날씨

4월 4일 (木) 음력: 2월 26일

수도권 날씨 10~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6/20, 동두천 7/21, 가평 6/19, 파주 7/20, 서울 10/20, 양평 8/20, 인천 9/19, 수원 10/19, 용인 10/19, 평택 9/2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정후, 6경기 연속 출루...오타니는 '침묵' /사진 뉴시스  
▲김하성, 세인트루이스전 4타수 무안타...3G 연속 안타 불발

▲황의조, 6주 만에 그라운드 복귀...교체로 10분 출전  
▲손흥민, 비유럽 선수 최초로 토트넘에서 400경기 출전



▲NBA 필라델피아 '돌아온' 엠비드 앞세워 OKC 꺾고 2연승 /사진 뉴시스  
▲류현진, 롯데 상대로 세 번째 선발 등판...'통산 99승' 재도전

SAMSUNG

# 세상에 없던 시라이프



**가져오, 세상에 없던 시간**  
 세탁시간을 잊어보세요  
 청소 걱정으로부터 벗어나 보세요  
 유통기한도 전력효율도 모두  
 모르고 살아도 좋아요  
 삼성의 시가 힘을 모으더니  
 집을 신경쓰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사랑하는 순간에 집중하세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삼성닷컴에서